

UNIFICATION
EDUCATION
MAGAZINE

VOL. 5 2007. 6

통일교육소식

www.uniedu.go.kr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1기 'UEM' 객원 및 명예기자 2차선발 발표 및 1기 3차선발 공고

당신의 '눈과 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 염원으로 '하나됨' 을 향해 전진하는 한반도 내 평화 · 통일메시지를
눈과 귀로 읽고, 가슴으로 담아낼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 모집부문** (2차 면접전형)
(객원기자) 인터뷰 및 스크립터, 아트 포터 및 취재촬영
(명예기자) 일상 속 평화와 통일관련 소재 발굴 및 취재
1차 합격 개별통보 후 추후 면접(추천일 경우 생략) 전형일 홈페이지(www.uniedu.go.kr) 공지 및 개별통보
- 응시자격** (모집마감)
초 · 중 · 고교 등 각급학교 학생 및 교사와 대학생 · 일반인
(성별, 학력, 나이 상관없이 해당부문 관심 있는 자 추천도 가능)
2008년 11월 7일
- 전형방법** (접수 및 문의)
(1차 서류전형) assa@khan.co.kr로 제1기 3차선발 UEM 기자 응시 제목으로 접수 및 문의
· 공통: 일반서식의 이력서, 자기소개서(200자 원고지 2~3장 내외)
· 객원기자: 통일 또는 평화(국내 또는 국제) 관련 칼럼 1건(200자 원고지 7장 내외)
· *아트 포터 및 취재촬영 응시자는 통일 또는 평화 이미지 사진파일 2점 제출
· 명예기자: 평화와 통일 관련 소재 또는 관심영역 기사(200자 원고지 5장 내외)
* 응모 의사가 있는 분들 중 UEM 기 발행호가 필요하신 분은 위 메일로 받을 주소와 성명, 연락처를 보내 주시면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 지원 및 혜택**
· 기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 지원 및 기념품 제공
· 해당부문 활동경력 인정서 발급

1기 2차선발 'UEM' 객원 및 명예기자 프로필

〈객원기자〉

 정대진(27)
명지대 전기과(졸)
(주)서울보증보험

〈명예기자〉

 광태환(22)
고려대 북한학과 2년

 유현선(19)
백운고 3년

* 제1기 2차 선발에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표지 그림 : 제3회 통일문화페스티벌 행사중 '평화 웃놀이'



18



30



38

2007년 6월 29일 발행(통권 제5호) 등록번호 11-1250054-000033-09
발행인 김홍재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02)901-7160~7 Fax 02)901-7088
주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Tel 02)901-7165
편집위원 양원택 · 윤환철 · 정용민 · 최민 · 허윤
편집기획 · 제작 (주)경향C&L www.kup365.com Tel 02)733-0365
복디자인 Design B612
※ 본지에 실린 내용은 무단복제를 금하며 통일교육원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일교육소식 Contents

- 02 **공고** 제1기 'UEM' 객원 및 명예기자 2차 선발 발표 및 3차선발
- 04 **특별기고**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접목_이기범
- 06 **커버스토리** 제3회 통일문화페스티벌
- 09 **테마기획** 참여정부 4년의 대북정책 성과
- 14 **통일교육 현장안팎**
· 북에서의 삶 경험기 글 '통일교육자원' _ 이재항
· 몸으로 느끼게 해준 '분단현실' _ 박종환
· 남한국민이 된 그들도 바로 '우리 이웃' _ 한숙
· '차이' 와 '다름' 인정이 출발점 _ 편집부
- 26 **새터민들의 24시** "우리도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확신" _ 허윤
- 30 **NGO's 소개** 仁術로 활짝 연 남북화합의窓 _ 정대진
- 34 **북한 깊이보기** 사상미학에 입각한 정치지향적인 '집단예술' _ 민경찬
- 36 **시** 금강산에 살다 죽어도 _ 신대철
- 38 **남북관계-1** 제20, 21차 남북장관급 회담/남북 열차시험운행 등
- 40 **남북관계-2 · 경제협력**
· 지금 개성공단은
· 내금강 관광 실시
· 지자체 남북 농업교류 사례
- 49 **남북관계-3 · 사회문화교류**
- 50 **남북관계-4 · 대북 인도적 지원**
- 52 **남북관계-5 · 남북관계 관련법률 정비현황**
- 54 **남북관계-6 · 북한관련 활동 경험담**
- 58 **탐방기**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통일 · 북한전문도서관' _ 광태환
- 61 **통일부 및 통일교육원 올 상반기 Hot Close-up**
- 62 **통일교육원 올 상반기 행사**
- 64 **통일 · 남북 관련 신간 Close-up**
- 65 **독자엽서**
- 67 **남북 · 통일 관련 신간안내**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접목

이기범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통일교육협의회 공동의장,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겨누는 것은 분명히 적이라는데 적이 아니라 나다.
포탄은 터져 날아갔는데 적의 심장을 뚫었다는데
죽은 몸도 자빠진 놈도 그것은 나다.

- 안장현 시집 <魚眼圖>중에서 '6·25의 폐허' -

한국전쟁 직후에 발표된 시인 안장현님의 시입니다. 폭력과 증오가 무서운 것은 처음에는 상대를 향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고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경제적 수준이 엇비슷한 다른 사회와 비교하였을 때 대형범죄 차원의 폭력은 많지 않지만 일상과 심성에서의 폭력은 매우 걱정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세로부터 수없이 침략을 당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방어하느라 폭력이 체질화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통일은 하나의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남북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낫게 살 수 있는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은 민족적 동질성을 재발견한다는 특수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평화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 폭력이 넓게 퍼진 가장 결정적 이유는 분단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분단은 남북이 서로를 중요하게 만들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여러 노력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분단은 '적'인 북에게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 안에서 군사문화·억압·갈등·편견·차별·분열,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하

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존중·이해·관용의 부족은 다름과 다양성을 억압해 왔습니다. 또 출생 지역·성·신체적 조건·종교 등의 차이가 차별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특정 인종과 나라를 깔보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주의가 편 가르기·규격화· 획일화로 차별과 억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게다가 서구 사회가 수 백년의 노력으로 이룩한 산업사회를 수 십 년에 따라잡겠다는 우리 사회의 발전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까지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평화 수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통일은 하나의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남북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낫게 살 수 있는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한이 통합됨으로써 사회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통합과 발전은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일상과 체제에서 평화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평화적 통합과 발전이 보장되어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질 때 통일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민족적 동질성을 재발견한다는 특수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평화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통일교육은 분단으로 인하여 생겨난 관계에서의 갈등과 왜곡현상을 극복하여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평화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며, 평화교육은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평화교육은 평화를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초래한 폭력과 억압을 성찰하고 비판하는 준거로 제시할 뿐 아니라, 통일의 준비



과정과 통일의 비전을 더 보편타당한 가치에 의해 구성할 수 있는 참조점^{Reference point}으로 제시합니다. 평화교육은 스스로의 평화수준을 개인적·사회적으로 성찰하여 자기 안의 차별·편견·인권침해·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을 강

조합니다. 그 과정에서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더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평화교육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적 덕목은 이해와 존중입니다.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갈등해소 연습이 필요하며 적절한 형태의 의사소통 연습이 요구됩니다

평화교육은 상대를 비판하기보다 상대를 존중하는 가운데 남북평화가 확대되고 분단이 극복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시민들의 인권 개선이라는 주제를 학습할 때 일방적 비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대화'의 필요성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권대화는 서로가 상대의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취지도 있지만, 우리 사회도 개선해야 할 인권사안이 많으므로 우리 스스로가 인권을 개선함으로써 그 타당성과 유용성을 북이 깨닫고 스스로 변화하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평화교육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적 덕목은 이해와 존중입니다.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갈등해소 연습이 필요하며 적절한 형태의 의사소통 연습이 요구됩니다. 또한 분단이라는 특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가치들, 예를 들자면 민족주의를 타당하게 해석하고 평화의 실현 과정과 연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평화교육은 일반적으로 폭력방지학습, 갈등중재학습, 발전학습, 지구적 평화학습, 비폭력학습의 5개 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인권·민족·공동체 등의 가치가 이 영역에 혹은 추가로 설정된 영역에 결합되어 학습되어야 합니다. 남북한의 평화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교육을 개발하고 실천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3회 통일문화페스티벌

우리가 만들기에 더 소중한 '평화·통일'의 꿈

통일교육원은 '평화, 우리가 만드는 거야!' 라는 주제 아래,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청소년과 일반시민 등 3,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통일문화 페스티벌' 을 통일교육원(서울 강북구 수유6동) 원내 일대에서 개최하였다. 행사 첫날 오후 2시에 열린 개막행사에는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환영인사와 함께 통일부 국민모델인 탤런트 고은아의 개막선언이 있었고, 곧이어 가수 안치환의 통일노래공연과 서서울생활과학고 밴드공연이 이어졌다. 편집자주



북쪽친구들이 내년엔 꼭 함께하자



환영인사를 하는 이재정 통일부장관



통일도 웃처럼 흥겹게!



고은아의 개막선언



나도 갈래요



공연도 보고 기념촬영도 '찰각'



작품수준 해마다 높아지네



평화나무애 무럭무럭 자리럼



북한음식 한번 맛볼까?



우리 '통일' 꿈도 신나게

| 테마기획 |

참여정부 4년의 대북정책 성과

평화와 번영을 향해 달려온 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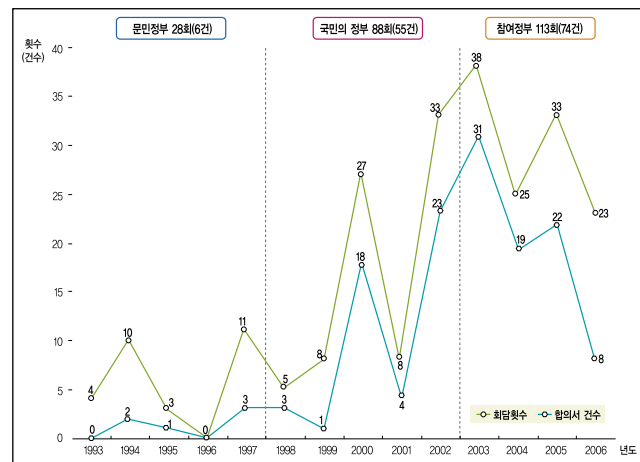
최근 열차시험운행을 통해 남북을 오가는 진정한 의미의 땅길, 바닷길, 하늘길이 완전히 열린 가운데, 대북지원·남북관계 법적 제도화·남북교역·경제협력 등 다양한 영역의 스펙트럼을 통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6년 말까지 4년 간의 대북정책의 성과를 수치화하여 되돌아본다. 편집자 주

남북회담 총 113회 개최

지난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이후 회담개최가 정례화되고, 정치·경제 등 분야가 보다 전문화·다양화되어 남북회담이 주요 현안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해결하는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간 총 113회(월 2.4회 개최, 2006년 12월 기준) 남북회담을 개최, 국민의 정부에 비해 회담개최 횟수가 28% 증가하였으며, 회담개최 대비 합의서 도출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문민정부 때 21%, 국민의 정부가 62%인데 비해 참여정부는 65%를 기록하고 있다.

〈남북회담 개최 및 합의서 현황〉



참여정부 회담개최 및 합의서 채택현황

구분	정치분야	군사분야	경제분야	사회문화분야	계
회담개최수	20	21	47	25	113
합의수	13	4	46	11	74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

참여정부는 △북핵불용 △평화적 해결 △주도적 역할 수행이라는 3원칙 하에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병행하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2005년 6자회담 중단 상황 속에서 북핵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해 ‘중대제안’을 구상, 제안하였으며 이는 6자회담 재개에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북핵폐기를 담은 ‘9·19 공동성명’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9·19 공동성명(2005. 9. 19) 주요 내용

-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을 재확인
-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규범 준수 약속
- 에너지, 교역 및 투자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증진 약속
-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 공약
-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는데 합의

또한 북한 핵실험(2006. 10. 9) 및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2006. 10. 15) 국면에서도 국제적 차원의 제재와 함께 대화를 통

2·13합의 개요

- 초기단계 이행계획: 60일 이내
 -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현존 북한 핵시설 폐쇄 및 봉인, IAEA 시찰권 복귀
 -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 목록 논의
 - 북미 관계정상화 양자대화 개시,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대상 제외 진전
 - 북일 관계정상화 대화 개시
 - 중유 5만톤 상당 에너지 지원
- 5개 실무그룹 구성: 30일 이내 첫 번째 회의 개최
 -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 다음단계 이행계획: 초기단계 완료 이후
 -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 중유 95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 6자 장관급회담 개최: 초기단계 완료 이후
- 한반도 평화체제: 직접 관련 당사국간 별도 포럼에서 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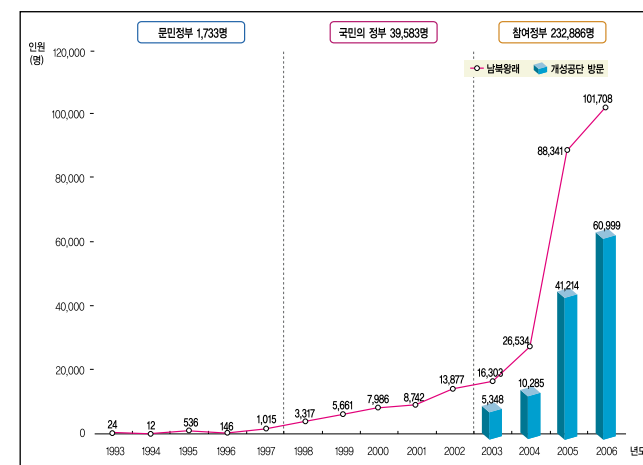
한 문제해결 노력을 병행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국을 설득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했으며, 그 결과 북한 핵폐기의 실천조치를 담은 ‘2·13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남북 왕래인원 ‘10만 명 시대’ 열어

참여정부 4년간 남북 왕래인원은 23만 2,886명으로 참여정부 이전 총 왕래인원 41,316명의 약 6배에 달하고 있는데 남북 왕래인원은 매년 급증, 지난해에는 한해 10만 명이 남북을 오가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는 북핵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꾸준히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해온 결과라고 할 것이다.

특히 2005년 개성공단개발 본격화가 인적 왕래 증가에 기여한 바가 크다. 연도별 총 왕래인원 중 개성공단 방문인원 비율은 2003년 32.8%에서 2004년 38.7%, 2005년 46.6%로 늘어났으며, 지난해는 60%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이고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 인적왕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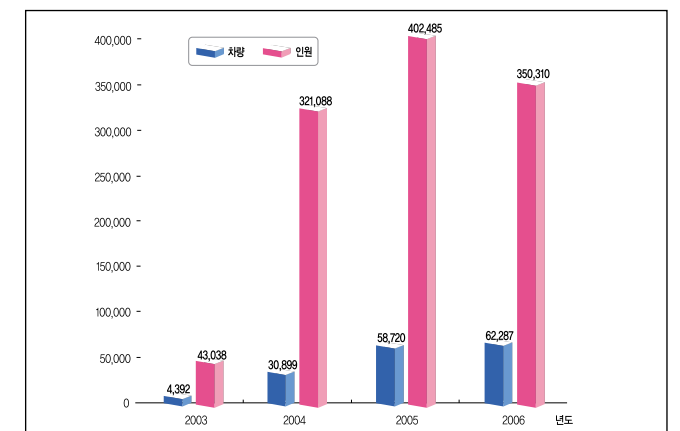
· 육로통행 ‘1일 1,000명 시대’ 돌입

참여정부 출범해인 지난 2003년에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가 개설되었고, 2004년 12월 남북 연결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육로통

행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2005년 일일 평균 육로출입인원이 1,000명을 돌파한 이후 북핵 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어려웠던 2006년에도 육로통행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2006년 3월 15일 경의선·동해선 도로 출입시설을 준공, 육로통행을 위한 물적 공간을 확보하고 육로통행절차가 간소화 되었다.

〈남북 육로출입 현황〉



※ 1일 평균 출경 인원·차량					※ 2005년도 대비 증감 현황		
연도	2003	2004	2005	2006	증감 인원	증감 차량	증감률
인원	140	894	1,139	1,016	52,175	3,567	△13%
차량	12	94	182	203	3,567	6%	

* 출경·편도기준임

한편 올해 5월 17일 남북열차 연결 시험운행으로 드디어 경의선·동해선 기차길도 열리게 되었다. 남북열차가 연결되어 상시적으로 운행될 경우 남북 교류에 있어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게 되어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며, 금강산 관광길은 더욱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최대자원국인 러시아, 최대시장인 중국과 더 나아가 유럽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공동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향한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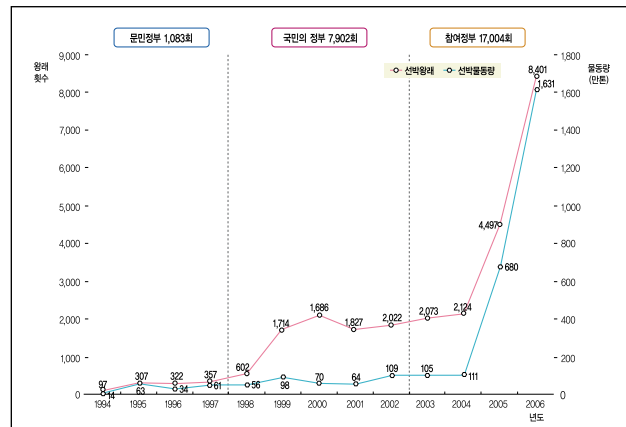
· 1일 평균 23회 남북선박 왕래

남북해운협약이 발효(2005. 8. 1)되고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선박왕래와 해운 물동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 4년 동안 남북 선박왕래 횡수는 총 17,044회, 이는 참여정부 이전 9년간 선박 왕래 횡수(8,985회)의 1.8배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는 총 8,401회의 선박왕래가 있었는데 이는 하루평균 23회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2005년 8월 15일부터 북한의 민간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북한선박의 왕래 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참여정부 4년간 해운물동량은 총 2,527만 톤으로, 이는 참여정부 이전 선박 물동량(569만 톤)의 4.4배에 해당한다. 모래 반입량의 경우 지난해 총 1,437만 톤으로 이 규모는 수도권 모래 연간 수요량의 2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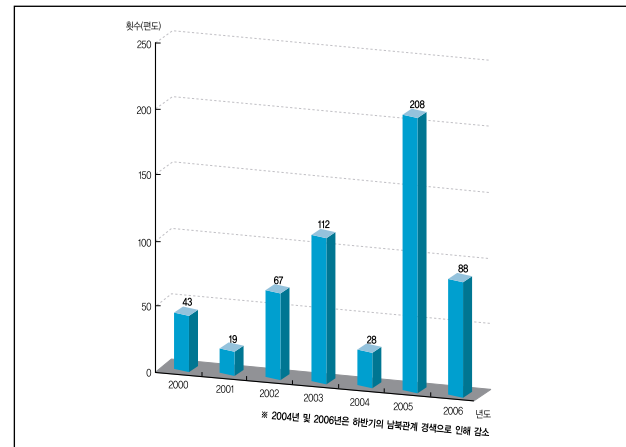
《남북 선박왕래 및 물동량 현황》



· 하늘길 이용 왕래횡수 총 436회

2000년 남북정상회담시 최초로 남북 직항로를 운항한 이후 참여정부 기간동안 하늘길을 이용한 남북왕래도 증가하였다. 참여정부 4년간 항공기 운항은 총 436회로, 국민의 정부 기간의 129회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특히 지난해부터 남북간 운항 항공기의 이용공항을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변경, 항공기를 이용하는 북한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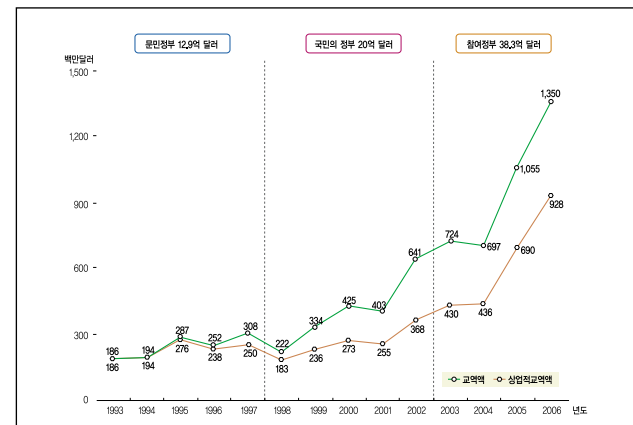
《남북 항공기왕래 현황》



· 남북교역 '10억불 시대' 진입

참여정부 4년간의 남북교역액은 38억 3천만 달러로 참여정부 이전 남북교역액을 모두 합한 32억 3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참여정부 이전 완만히 상승하던 남북교역액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개성공단 건설과 육로통행 등 교역확대 여건 마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남북 교역액 현황》



교역구조에 있어서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그리고 경제협력 등 상업적 거래비중이 증가하면서 남북교역이 보다 내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교역액의 68.8%가 '상업적 거래'가 차지하였는데 이 수치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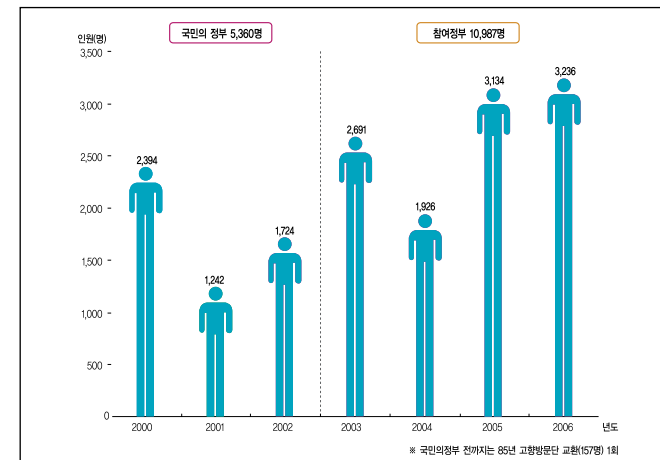
이산가족 상봉인원 1만 명 돌파

'화상상봉' 도입(2005. 8) 등 상봉 방식이 다양해진 참여정부 이후의 이산가족 상봉은 매 회당 상봉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발전되어 왔다.

기존 대면상봉과 함께 총 네 차례 실시된 화상상봉 이외에도 2004년 8월 상설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착공함으로써 이산가족들의 수시 상봉이 가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지난 1985년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이후 2006년 말까지 총 1만 6,504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으며, 이중 66%(1만 987명)가 참여정부 4년 동안에 성사되었다.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현황》



우리의 이웃 '새터민' 수가 1만여 명 시대

국내로 입국하는 새터민이 2002년 이후 연간 1천여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올해 2월 새터민 수는 총 1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5년 단순 지원이 아닌 실질적 지원체계를 확립을 위해 '보호 중심형 지원'에서 '자립 중심형 지원'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정부 주도형 지원제도'에서 '민간 참여형 지원제도'로 전환하여 정착도우미를 도입하는 등 민간단체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회적응교육 및 주거·취업·교육 등에 있어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교육 부문에서는 새터민 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직업교육은 전문기관인 폴리텍 대학에 위탁하여 성별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새터민 정착지원 예산규모 역시 국민의 정부 때 총 496억 원보다 증액된 총 1,334억 원이다.

새터민 정책 변화

구분	참여정부 이전	참여정부
하나원 교육	· 하나원 교육 · 강의 중심, 양성 통합교육	· 현장 체험중심, 성별 분리 · 특화 교육
정착금	· 기본금 위주 정착금 구성	· 자활노력 인센티브화
주거지원	· 공공건설임대주택 위주 공급	· 공급주택 확대
취업보호	· 취업기간 감안치 않고 고용지원비 지급	· 취업기간 감안, 고용지원비 처당 지급
교육보호	· 10대 청소년 학교적응지원책 미흡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개교
민간 참여	· 정부중심의 정착지원 시스템 운용	· 정착도우미 제도 도입



새터민의 교육현장 참여 프로그램 개발
**북에서의 삶 경험이
 곧 '통일교육자원'**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학교통일교육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자 지난해 11월에 개최한 '학교통일교육경진대회'에서 발표된 총 18편의 사례 중 1편을 지면관계상 축약정리하여 실는다. 편집자 주



I. 프로그램 개발동기

벌써 남북이 분단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 분단 장기화로 인한 통일 당위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통일문제에 대해 학생은 물론 교사들조차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과 통일이 이뤄진 이후 남북한간 사회통합과정에서 이질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터민'을 학교통일교육에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증가하고 있는 새터민. 그들의 북에서의 실제 경험을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착안한 것. 이는 학생들에게는 현실감 있는 수업으로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와 함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새터민들은 일정 역할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와 의미를 포함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프로그램 개발과정

1. 연구모임 결성

2006년 3월, 대구시내 4개 중학교 도덕교사 5명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장학사 1명, 그리고 경북대학교 김영하 교수 등 7명은 '새터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연구회'라는 연구모임을 결성한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한이주민지원센터 협조를 통해 총 4명의 새터민이 본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된다. 이들 4명은 경북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05년 대구·경북지역 내 각급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여성들로서 연령대는 20대(1명)와 30대(3명)이었다.

2. 활용 교과

중학교 2학년 도덕 교과의 정규 수업시간을 염두에 두고, 새터민들의 실제 북한사회 경험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이 적용된 단원은 'II. 바람직한 국가·민족생활'의 '4.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 가운데 '2)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였다.

III. 수업안 개발 및 적용

1. 설문 조사

학생들에게 수업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에 설문조사하고 이를 수업지도안 작성에 참조하였다. 다음은 설문지 양식(표1)과 북한의 학교와 가정생활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학생들의 질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표2)한 것이다.

설문지(표1)

새터민과 함께하는 통일 교육 수업을 위한 설문지
 ()중학교 2학년 ()반 ()번 ()

* 북한 영화를 보면서, 평소 북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질문은 많을수록 좋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북한의 정치생활에 관해 궁금한 점
2. 북한의 경제생활에 관해 궁금한 점
3. 북한의 사회생활, 문화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언어, TV, 여가활동, 유행 등등)
4.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
5. 그 외 새터민(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점

북한의 학교·가정생활에 관해 궁금한 점(표2) * 동도중 학생들 질문 중 일부 발췌

1. 북한 아이들도 학원을 다니는가?
2. 북한에서도 영어를 중시하는가?
3. 학교에서는 급식을 하는가? 학교에 매점이 있는가?
4. 북한 학생들도 이성교제가 가능한가?
5. 북한학생들의 학습열은 어떠한가(밤을 새우는가)?
6. 북한 학교에도 불량학생(술·담배·폭력)이 있는가?
7. 북한에도 왕따가 있는가?
8. 학교축제(학예회)가 있는가?
9. 수학여행은 어떻게 가는가?
10. 제2외국어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11. 사립학교는 있는가?
12. 학교 갔다 와서는 무엇을 하는가?
13. 가족구성원은 어떻게 짜여지며, 보통 몇 명이 한 가족인가?



2. 수업지도안 작성과 수업진행 방식

수업지도안은 연구회 참여 교사들과 함께 사전에 중학교 2학년 교과서 관련단원에 대한 분석을 하는 한편, 학교통일교육지침서와 학생들의 설문내용을 토대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학교 및 문화생활을 주제로 4차시 지도안(5개반 20시간용)으로 작성하였다.

수업운영은 새터민과 교사가 2인1조가 되어 함께 가르치는 팀티칭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전반적인 진행은 지도교사가 맡고, 새터민은 학생질문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강의식보다는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돋우기 위해 학생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많이 주는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수업지도안과 PPT자료는 연구모임 홈페이지(<http://www.dgedu.net/edu/2006/049/>)에 탑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3. 수업 적용

수업 운영은 동도중·입석중·도원중·달성중학교 등 본 연구회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중학교 네 곳에서 4차시 5개반 20시간으로 하였다. 특히 학교생활과 문화생활 단원의 경우 동도중학교 수업을 기초로 하여 세 곳(입석중·도원중·달성중)에서 공개수업을 통해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도덕 교과 담당교사들(108명)이 수업을 참관하였다.

IV. 수업 평가

1. 학생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먼저, 통일문제에 대한 흥미도와 관련하여 “수업 이후 관심이나 흥미가 더 높아졌다”는 제시문에 대해 전체의 81.2%가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새터민을 활용한 수업 흥미도와 관련 “전체적으로 수업 진행이 재미있었다”는 의견이 81.5%, 학생들의 수업 참여태도 평가항목인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73.0%가 ‘그렇다’ 라고 답하고 있다. 한편 새터민과 함께하는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3.5%가 ‘찬성’ 의사를, 끝으로 이렇게 새터민을 참여시키는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묻는 질의에서도 응답자의 82.9%가 찬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 소감문을 중심으로 한 평가(동도중학교 2학년 8반)

성명	소감문 주요 내용(요약)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터민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북한과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 북한의 체제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를 위해 만들어놓은 울타리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 북한은 우리민족이면서도 다른 민족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겠다.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모습은 무조건 딱딱하고, 무겁게만 느껴졌는데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 통일을 하더라도 사회에 큰 혼란과 정치상의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이라 솔직히 통일을 원하지 않았지만 수업을 듣고 나니 통일을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북한과 남한이 서로를 위해 대화와 협력을 다해 꼭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2. 공개수업 참관 교사들의 평가

중학교	교사명	참관 의견
성당중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기심 유발, 출발점과 행동진단이 돋보임 · 질의 및 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즉시 해소하는 것이 좋음 · 제안: 프로그램의 타 학교로의 확대 필요성
죽전중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게 이해하도록 한 점이 매우 좋음 · 제안: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
성지중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터민 활용으로 살아있는 수업이라 평가됨 · 학생들에게 큰 교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수업이었음

V. 전체적인 평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이전의 수업과 달리 피부에 와닿는 느낌을 받았다”, “색다르고 재미있었다”가 주류를 이루는 바, 새

터민과 함께 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성취도가 매우 높았음을 나타내는 반응이라 보며 “수업시간을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은 높은 학습참여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업을 참관한 교사들 역시 “사실적이고 흥미롭다”, “북한사회 이해에 꼭 필요한 수업방식이다” 등의 반응으로 본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평가(반응)들은 새터민과 함께 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더불어 확대의 필요성을 충분히 대변한다고 하겠다.



이재향 대구 동도중학교 교사

그동안 '통일교육' 수업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북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다며, 지금 우리의 이러한 노력 하나하나가 남북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날을 앞당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새터민과 함께한 도덕수업

북한도 우리를 알리는 교육이 있었으면...

처음 새터민과 함께하는 도덕수업을 할 때는 뭐 보통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랑 다를까 생각하면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북한이란 존재는 우리 가족 중에 이산가족이 없어서 그런지 수업을 하기 전에는 적대감도 좀 가지고 있었고 무섭기도 했다. 또한 내심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통일이 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력 또한 나빠질 것이고, 우리나라가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내려가는 게 싫었다. 하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 더 자세하고 뚜렷하게 알게 되었고, 북한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냥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났다. 우선적으로 새터민이라는 사실이 나의 흥미를 돋우어 주었고, 너무 사실적인 설명에 다시 한번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내가 제일 흥미를 가졌던 것은 북한 사람들의 정치생활이었다. 북한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었다는 걸 몰랐고, 북한도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다. 북한이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너무나도 다른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물론 수업을 하기 전에도 수령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지만 수업을 들은 뒤, 수령이 북한에서 얼마나 큰 존재인지 깨달았다.

또 흥미롭게 봤던 것은 북한의 교육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이 집단체조였는데, 어떻게 수백명이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너무 신기했다. 또 우리 남한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반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는게 신기했다.

북한의 가정 또한 엄격하고 밥 먹기 전에도 '수령님'에게 감사하고, 가족들 간에 걸으며 드러내는 애정표현 같은 것은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북한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에서 북한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이 넘치고 너무 편안히 대하는 것 또한 특이했다.

북한이라면 무서운 존재, 발 맞춰 척척 걸어가는 군대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 또한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은 존재이며, 통일이 되어도 잠시 안 좋을 뿐,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수업을 통해 북한에 대해 열린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같아서 너무 좋았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더욱 많은 수업을 듣고 싶고, 우리나라가 북한의 실상을 점차 알아가는 것처럼 북한도 우리나라를 알리는 교육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동도중학교 2학년 8반 이○○



| 통일교육 현장안팎 · 학교통일교육사례-2 |

단순지식 전달이 아닌 체험학습 프로그램 시행 몸으로 느끼게 해 준 ‘분단현실’

영양고등학교는 평소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교장과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 경상북도 교육청에 통일교육 시범학교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다양한 통일관련 활동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이라는 과제를 성실히 수행(2005~2006학년도)하여 그 결과를 대외에 발표, 통일관련 단체 및 관계자로부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았다. 한편 영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각종 통일문제대회 입상은 물론 ‘교사통일교육 발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1. ‘시범학교’ 지정이후 도입된 새 프로그램들

(1) 가상공간 북한여행 홍보자료 만들기 (수행평가)

영양고등학교에서 도입한 통일교육은 우선 기존의 교과목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통일에 대한 상상을 자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지리’ 시간을 체험적인 통일교육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해 본 것. 북한 관련 단원을 학습한 후에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한다는 가정 하에 여행하고 싶은 북한 지역을 선택하게 하고, 소개하는 자료를 만든 본인이 그 자료를 토대로 직접 급우들에게 홍보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처음엔 다소 주저하는가 싶던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웠던 북부 지방의 위치 · 지형 · 기후 특색과 주민 생활의 모습 등 지식 위주의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각 개인별 자신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택하여 홍보자료를 만들어 나갔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다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 매체를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청소년 특유의 흥미와 창의력을 발휘, 개성 넘치는 ‘북한여행 설명자료’를 만들었다. 또한 학생들의 결과물을 수업시간에 발표하게 하고, 더 나아가 적절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여 전시를 하자 다른 학생 혹은 학급과 비교해 보며(같은 학교 학생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기네들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을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창의적 과정에서 학생들은 북한을 우리와 다른 세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하고 비슷한 생각과 언어를 사용하는 ‘이웃’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 학습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하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느끼는 시간이 된 것으로 보인다.

(2)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맞춤형 자료집 (특별교재)

특별교재는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지정을 받은 후부터 교사 모두가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목에서 통일관련 내용을 조사 · 수집한 후 발표 및 토론을 거쳐 취합된 것 중 엄선된 자료를 책자로 발간한 것이다. 지난 2년간 ‘북한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 I, II 권은 교내에서 개최된 통일퀴즈대회 자료집 및 통일관련 학습자료 수업자료로 활용되었다.

(3) 북한 영화감상과 통일경제반 운영, 통일백일장 개최

북한 영화감상은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성교육 · 환경교육과 함께 통일교육 차원에서 이뤄졌다. 아울러 ‘통일경제반’은 학급별로 지정된 통일도우미를 중심으로 1~2학년을 대상으로 10명 정도로 편성, 특별활동으로 운영되었다. ‘통일백일장’ (연 2회)의 우수작품에는 학교장상을 수여하였으며, 모든 작품은 작품집 ‘통일은 관심이다’라는 제목의 책자로 발간되었다.

(4) 몸 튼튼, 통일의지도 튼튼(통일마라톤대회와 로고 만들기)

다른 시범학교에 비해 영양고등학교만의 이채로운 프로그램은 단연 ‘통일마라톤대회’. 통일마라톤은 지역 유관기관 행사 일환으로 치러지며 교직원과 학생들이 대부분이 참가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통일기원 행사이다. (학교~영양읍내 순환코스로 거리는 3km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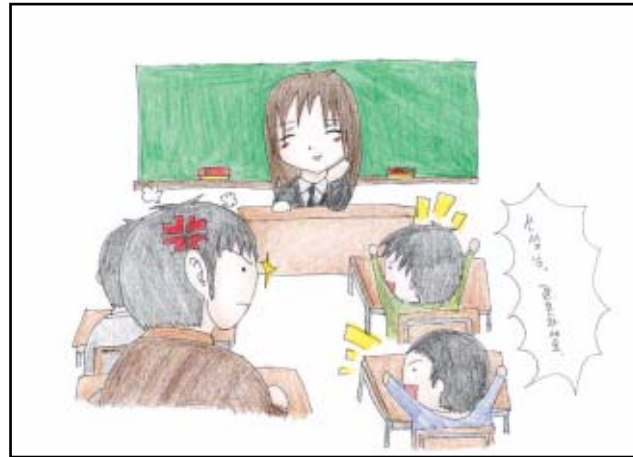
한편 전교생이 다 함께 참여하는 매스게임식 행사인 ‘로고 만들기’ 행사(‘통일☆꿈’ 로고 만들기)는 지난해 개교 60돌 기념행사 기



통일명상의 시간

방송 시간: 격주 월요일 1교시 5분간
 낭독/청취대상: 교내 방송반/1 · 2학년

순번	제목	중심내용
1	참다운 한민족이 되는 길	남북이 함께 민족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 계승 발전시켜야 함
2	남북 분단, 민족의 아픔	역사의식을 정립함으로써 과거를 극복하고 민족 통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함을 강조
3	남북의 다리 금강산	관광의 길이 열리면서 가까워지게 된 금강산을 통해 남과 북의 만남의 의미를 되새겨 봄
4	호랑이를 닮은 우리 땅	백두에서 지리산까지의 백두대간이 하나이듯 한 민족의 정체성을 찾자는 내용
5	변화하는 북한 사회	북한에도 직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
6	북한 선거를 어떻게 하나	북한의 선거제도를 알아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부여
7	햇빛시장, 달빛시장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어려운 북한 경제 현실과 실상을 알아 봄
8	북녘동포, 그들의 의식주 생활	북한의 의식주 생활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고 북한 주민의 생활을 바르게 이해함



획 중 나온 의견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학생들에게 통일의 의지를 다지고, 모두 다 동참하는 의식을 갖게 하였으며 참여학생과 교사들 모두가 즐거운 행사였다.

2. 프로그램의 효과

통일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된 이후 영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나타난 변화 중 가장 큰 것은 통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줄 것이란 인식에서 우리가(내가 스스로)해야 하는 일임을 조금씩 느끼고 깨우쳐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외국(특히 독일)의 사례를 공부하면서 통일을 어려워하고 통일비용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였다. 결국 학생들의 통일의지를 일깨워 준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 수업이 아니라 분단 현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게 해준 체험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새터민과의 대화'나 '금강산 체험연수'와 같은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3. 맺음말

통일세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통일 이후 사회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사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동감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생들은 입시에 쫓겨 통일문제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또 교사가 수업시간에 통일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여도 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의 부족에 시달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위한 연수과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통일교육시범학교' 지정은 학교 차원에서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범학교 간에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시범학교를 지정받고 프로그램을 짜면서 교직원들이 다른 시범학교(서서울고등학교 등에) 참관하여 도움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교육 정책적 측면에서는 남북간 긴장의 정도에 따라 통일교육이 일회성일뿐 아니라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계속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다. ☺



박종환 경북 영양고등학교 교사
우리 민족이 진정한 21세기의 주역이 되기 위해선 민족적 과업인 통일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서히, 그러나 꾸준한 통일의 노력이 필요한데 학생들에게 통일이 민족최대의 과제임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7 봄 통일강좌' 내용 증발체

남한 국민이 된 그들도 바로 '우리 이웃'

2003년

부터 새터민 입국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들의 성공적 국내사회 정착이 통일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데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왜냐하면 1만 명의 새터민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제대로 터 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남한의 일반 시민들이 그들과 공존해서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통일을 이룬 뒤에도 남과 북이 잘 공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새터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새터민과 북한, 통일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만 새터민들의 정착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벗들'은 새터민의 국내 정착지원과 일반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서 통일강좌를 봄, 가을로 진행해 오고 있다.

"우리도 남한국민입니다."

이번 '2007 봄 통일강좌'의 테마는 인간으로서의 건디기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 정신마저 크게 상쳐받은 새터민들이 이 땅에서 다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또 다른 고충을 털어놓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였다. 청소년 · 여성 · 전문 직업인 등 다양한 탈북 계층의 고단한 남한살이 속내를 들여다보고 새터민이 걸어온 10년의 역사와 그들의 사회정착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꾸려지고 있다. 그래서 새터민의 현실을 바로 보고 그들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에서 벗어나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강좌의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4월부터 매일 둘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정동회 3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2007 봄 통일강좌'에는 새터민과 함께 일해 온 현장 실무자와 새터민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어느 정도 알려진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된 새터민들은 탈북과정에서 이미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 땅에서 나오기 위해 목숨을 걸며, 중국에 나와서는 무국적자로서 늘 체포와 복송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지낸다. 그 중 일부는 복송되어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성들은 임신매매,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또 중국서 매매혼을 한 경우 탈북 여성이 낳은 아이는 호구(중국 호적)를 갖지 못해서 엄마와 같은 처지의 무국적자가 되어 탈북자의 또 다른 큰





이 풀려갈 것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발 묻지 말고 아이들이 얘기하게 기다리세요, 그 아팠을 탈북 과정을 자꾸만 물어보고 상처를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아이들 에겐 이 또한 상처가 되어 점점 안으로만 숨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새터민은 외국인이다, 남한은 북한 사람들이 와서 살기에는 이미 적응하기 힘든 외국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에 탈북해서 숨어산다는 수많은 동포는 어찌고, 통일 후에는 어찌나요?”

“북한·새터민,과 같은 무거운 단어에 치여 답답함과 어쩔 줄 모름에 놓여있던 속을 확 뚫어준 시간이었습니다.”

☀️ 다양한 행사로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강좌에 참가한 이들은 새터민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슬픔을 함께 해주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새터민의 따스한 이웃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또한 새터민 강사들도 털어놓은 자신의 아픈 경험과 고민의 무게보다 더 큰 이해와 격려와 사랑으로 단단해져 간다. 이렇게 가슴을 열고 만나는 시간이 우리 통일강좌의 가장 큰 미덕이라 할 수 있다.

‘좋은벗들’에는 ‘통일대화마당’ 이외에도 새터민과 만나는 다양한 채널이 있다. 새터민들이 남한사회 정착 교육을 받는 하나원에 있을 때 남한의 역사를 배우러 떠나는 ‘하나원 남한역사기행’의 시간이 그 예이다. 또한 해마다 5, 6월이면 손에 손을 잡고 남북 사람들이 같이 소풍을 떠난다. 함께 유적지 구경도 하고 한 팀이 되어 게임도 하면서 서로가 이웃임을 느끼는 ‘남북한동포 좋은 이웃의 날’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가을, 추석 직후에는 고향을 두고 떠나 온 새터민들이 조상님께 따스한 차 한 잔 올리며, 살기 바빠 못 만났던 고향친구들과 담소도 나누고 한바탕 뛰며 어우러지는 ‘전국 통일체육축전’이 열린다.

이 모든 활동은 ‘좋은벗들’에서 진행되는 남북한동포 좋은이웃되기 운동이다. 통일을 만들어 가는 좋은이웃이 되고자 한다면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다. ☺️



한숙 ‘좋은벗들’ 통일사업부 교육팀
새터민 자원활동 이전엔 북한의 실상을 너무 몰라서 통일은 머릿속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안다는 그녀. 통일을 위해선 우선 남북한 국민 모두 서로를 알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력의 첫 번째는 새터민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때로 혈육의 죽음과 맞닥뜨리기도 하고 중국이나 북한의 감옥에서 지낸 경우도 허다하다.

문제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언어가 통한다는 한국에 오지만, 60년간의 체제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외국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시장보기·은행 일 보기 등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새로 배워야 하고, 몸과 마음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고통스러운데 새터민을 바라보는 일반시민의 시선은 곱지않은 않다.

☀️ “새터민은 외국인이다”

따라서 ‘좋은벗’ 들은 봄강좌를 준비하면서 새터민과 일반 시민간의 멀다면 먼 심리적 간극을 좁히는 것을 ‘2007 봄 통일강좌’의 최우선 목표로 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통일대화마당에 참여한 많은 이들이 새터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의 첫 회부터 유쾌·상쾌·통쾌하면서도 가슴 먹먹한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탈북청소년교육 공동체인 ‘셋넷 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살이와 그들의 고민과 꿈은 생생한 현실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에는 알고 보면 근 60년간 헤어져 살아 이제는 너무 달라진 우리 조국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함을, 그리고 그 다름을 안고 살아가야 함을. 그래야 많은 문제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방향

‘차이’와 ‘다름’ 인정이 출발점

역사적인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이후 순조롭게 발전되어 오던 남북관계는 2002년 다시 불거진 북한 핵문제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9·19 공동성명’이 도출되었고, 올 초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2·13 합의’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현실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위 사진은 새터민 학생들의 남한적응을 돕는 대안학교 ‘자유터 학교’의 ‘우리문화 익히기’ 수업 한 장면

평화에 대한 가치와 의식 제고해야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국내의 정세에 부응하여 통일교육도 평화교육적 내용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면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도 평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교육이 반공교육·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중요시하는 교육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통일에 수반되어야 할 가치인 '차이에 대한 이해'와 '관용' 및 갈등의 평화적 해결 등 평화구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았던 측면이 있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로 있었던 서독은 1970년대 초 브란트 수상 이 동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통일교육의 방향을 동독 공산주의체제의 열등성과 문제점 부각에서 동독 체제의 특징, 경제 현황과 생활 수준, 그 사회의 경직성과 폐쇄성 등을 있는 그대로 알려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통일 후에도 독일은 동서독인이 정신적·사회적으로 함께 하는 토대를 구축하고 통합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며 인지하고, 독일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독의 정치교육은 우리의 통일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하에서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평화의식 강조하는 '평화교육'

우리 사회는 갈등과 대립의 해결 방식을 대화와 비폭력적 방법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 사회에 맞게 대화와 협력 등 평화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비폭력적 의사소통 방식을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체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주의의 심화로 인해 타인을 배려하는 관용의 미덕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평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정부의 기본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한반도는 극도로 긴장되었고 한반도 위기가 다시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으로 가는 상황을 막고, 안보 현안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6자회담이 재개되어 '2·13 합의'를 이끌어 내고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다시 찾게 되었다.

이처럼 남북한 및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갈등과 문제일지라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일의 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예멘·베트남 등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나라들을 보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많이 가진 나라(독일)는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렇지 않은 나라(베트남·예멘)는 전쟁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 EU를 보더라도 2차대전 후 50년간 각종 평화유지 장치를 마련하고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혔기 때문에 유럽연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모두 평화적인 통일에는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하면 평화와 통일 사이에 크고 작은 평화의 다리가 많이 놓여야만 비로소 통일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잣대 버리고 남북간 '다름' 인정

우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에 놀란다면 그것은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거나 같아야 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우리의 잣대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들이 예상과 달리 우리와 비슷하다는 사실에 놀란다면 그것 역시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거나 여전히 적대시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우리의 잣대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다보니 북한을 방문했을 때에는 외국에서 느끼는 문화충격과는 또 다른 독특한 충격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오늘날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일상화되고 공동으로 사업하는 기회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대화의 상대가 되는 북한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해 지고 있다.

남북간의 '같음'을 찾아 확대·발전시켜야

북한과 우리의 '다름'만 강조하다보면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외국'이라는 느낌이 들고 심지어 통일을 해야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 같은 조상을 가진 형제이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풍속도 같은 것이 많으며, 해방 이전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같은 민족이다. 지난 60년간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다보니 많은 것이 달라졌고 지금도 다른 점이 많지만 언젠가는 함께 살아가야 할 역사적 존재이다.

'다른 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은 북한에 대한 편견을 갖는 데서 오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자는 뜻에서 말한 것이지, 다른 나라처럼 따로 살자는 뜻에서 언급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북한과 우리에게 같은 점도 많이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조상·언어·역사·풍속·전설 등을 비롯하여 음식·

민담·그림·노래·오락 등 찾아보면 다른 점보다 같은 점이 더 많은 정도이다.

'이익'의 개념을 도입한 통일교육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당위적 측면에서 분단 극복과 통일이익의 함양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북한경제가 극도로 침체되고 2000년 이후에는 대북지원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면서부터 우리 국민들은 통일 및 남북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교류협력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무엇보다도 '평화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무디스'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 기관이 남북한 관계를 국가신용 평가의 핵심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투자와 경제발전은 정치적 안정을 전제로 한다고 볼 때,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의 경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다음으로 남북한이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성공단과 같은 방식으로 경험을 확대해 나가면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활로를 열어 주고 북측 근로자에게는 일자리와 소득을 안겨준다. 또한 장차 남북간 열차가 운행되면 우리에게 대륙으로 가는 물류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북측은 통과료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남과 북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야는 얼마든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익은 식량·비료 등 인도적 지원에서 오는 '신뢰의 이익'이다. 우리의 대북지원이 상당기간 지속되다보니 북한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만큼 우리에게 대한 적대감이 약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익차원에서 주변정세를 보는 '정세 이해'


탈냉전 이후 세계는 이데올로기적 기준에 따라 대결하고 분열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경제적 국가이익과 실용주의가 부상하면서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초일류만 살아남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개별국가들은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중심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할 국익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도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은 이처럼 복잡하게 전개되는 국제정세를 단순히 친소^{親蘇}관계로만 보려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국익의 차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사안인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을 띤 측면도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개방과 국제화'의 시대흐름 인식제고

미국과의 FTA 체결에서 보듯이 시장경제와 개방 및 국제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며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오던 중국조차 물권법을 채택함으로써 시장경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북한은 아직도 폐쇄와 고립 상태에 있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실질적인 개방의 길로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 개방시키려고 하면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을 자극하여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편집부

본 내용은 제16기 통일교육위원 특별연찬 교육자료로 활용된 것을 재편집한 것이며, 사진은 남북나눔운동본부와 유진벨에서 제공한 것임.



자립자활 새터민기업 1호 '백두식품' 윤성철 이사

“우리도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확신”

새터민 1만 명 시대. 머릿속으로 생각해봤다. 1만 명이면 어느 군^현의 면^{단위} 촌락을 이루고도 남을 규모가 아닌가. 북에서 각자 다양한 일을 했을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므로(더 정확히 말해 '사회적 동물' 인데) 모이고, 뜻을 함께 하다보면 자연히 의기투합, 같이 활동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게 마련. 그래서 가만히 손으로 꼽아봤다. (지난 4월 새터민단체연합 성격의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창립된 걸 보면 모르긴 몰라도 많을 것 같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도(가만보자 으음...) 황장엽씨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탈북자동지회', 하나원 수료 후 자동 가입되던 것을 얼마 전에 자율가입으로 바꾼 남한 최대 새터민단체 '승의동지회', 그리고 모두가 북에서 음악을 전공한 여성5인조 그룹 '달래음악단'...(후에 확인해 본 결과, 활동 중인 단체 수는 무려 20개나 되었다)

오늘 전화상이지만, 인터뷰를 한 '백두식품' (대표 이춘삼)은 다양한 새터민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자립코자 새터민들이 세운 기업모델 1호이다. “아이구 죄송해요. 제가 지금 식당 재료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어서...” 어제 통화를 했을 때 유선을 타고 들려온 백두식품 윤성철 이사의 대답은 나를 당황케 했다. ‘이사님이 시장에서 장을 본다? 그것도 식당 찬거리를 사러?’ 그러나 궁금증은 오늘 이내 풀렸다. 지난 5월 16일 경기도 일산 백석동에 ‘정육점식당·느릅냉면’ 간판을 내걸고 음식점을 개업 한 것.

‘백두식품’에서 식당경영으로까지 사업확장을 하신 건가요?

아, 네. 직영 음식점인 셈이지요. ‘백두식품’ 전체 임직원 18명 중 10명이 새터민입니다. 물론 백두식품의 전신인 ‘대관령 식품’을 2000년 12월에 설립할 당시 창사멤버 6명도 모두 당시 탈북자라 칭하던 새터민이었지요. 그것 아세요? 일자리가 있는 새터민 수가 전체의 몇 %나 되는지.

(답변을 기다리던 내게 되레 던진 질문에 당황하며) 잘은 몰라도 80%는 되지 않을까요?

딱 2배로 생각하시는군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표정이 전해오는 듯했다)



“새터민들은 북한의 사회주의에 길들여져 있어서 ‘살기 위해선 스스로 뭐라도 해야 하는’ 남한 물정에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요. 그래서 자신감 결여로 인해 불안감은 쌓이기만 하는데, 그 불안은 결국 자기 이웃에 대한 불만으로 변해갑니다”

... (잠시 난 말을 잊지 못했다)

새터민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임원진들이 월급을 타가지 못하던 고통의 초창기, 은행을 이용할 줄도 몰랐고 홍보에도 어두워 결국 할로모색 차원에서 영입했던 남한출신 전무에게 ‘믿는 도끼에 제 발 찍히듯’ 회삿돈 횡령의 고초를 겪는 등 갖은 고생 끝에 일궈낸 ‘백두식품’은 말 그대로 새터민들의 ‘자립·자활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한번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해보자’ ‘우리도 떳떳하게 일해서 벌어보자’는 합심이 이뤄낸 결과물이었던 거지요.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 온 새터민들은 북한의 사회주의에 길들여져 있어서 ‘살기 위해선 스스로 뭐라도 해야 하는’ 남한 물정에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요. 그래서 자신감 결여로 인해 불안감은 쌓이기만 하는데, 그 불안은 결국 자기 이웃에 대한 불만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 자신이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기에 새터민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개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식당종업원 10명 중 6명이 새터민입니다.





“사업영역 업그레이드에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대형 할인매장 진입이 관건인데 이를 위해선 2인용 등 소단위 제품포장이 가능한 생산라인 자동화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금력으로는 차마 엄두를 못내고 있지요. 정부의 시설자금 저리 지원 등의 시책이 필요합니다”

음식점 이름이 '정육점식당 · 느림냉면' 인데 메뉴는 어떤 것들을 선보이나요?

식당이름이 촌스럽죠? (말해놓고 본인도 우스운지 웃는 소리가 들린다) 한꺼번에 쉽게 다 표현하려다 보니 글자도 많아졌지만, 대신 한번 오신 손님들은 잘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순수 한우만을 음식재료로 하면서 '백두식품' 의 느림냉면도 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식당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우고기 자체를 팔기도 하지요. 백두식품을 통해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에 참여하고 있듯이 이 식당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시작했으며, 특히 올 7월초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기업' 으로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냉면 · 찜빵 · 차 등 백두식품 의 주 제품 모두가 느림을 재료로 한 것들인데, 남한에서는 느림이 식품으로 팔 수 없는 약재로 분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일반식품으로 쓸 수 있게 했는지 궁금하군요?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느림을 약재로 사용했는데, 느림 껍질과 씨에서 나오는 점액질은 성질이 평하며 맛이 달고 부드러운 이노작용을 돕고, 장의 사멸을 없애 장염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뿌리껍질을 달여 음복하면 위염 · 위궤양 · 축농증 · 비염 등에 좋다고 전해지지요. 그런데 남한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명절 때나 귀한 손님이 오면 느림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초기 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려 할 때 주무처인 식약청에서 느림은 '약재' 로만 등록되어 있어 일반식품 허용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앞이 캄캄하더군요. 하지만 느림에 대한 문헌과 자료를 모으고, 관계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식용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느림은 어디서 공급받고 있나요?

바로 이것이 '백두식품' 이 다른 경쟁제품과 극명하게 변별력을 갖는 대목입니다. 느림은 100% 북한에서 들여오며, 느림을 식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북한산' 느림나무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실 북한에서도 섬유향이 많고 공정이 복잡하여 일반 밥상에 흔하게 올라오는 메뉴는 아닙니다. 초기에는 물류비 등으로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보다 우리제품 가격이 2, 3배 비쌀 수밖에 없는 현실과 '탈북자가 제대로 만들겠어?' 라는 제품 자체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심에 '몰라줘서 오는 서러움' 까지 북반부 남몰래 직원들이 서로 껴안고 운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백두식품' 작년 매출규모와 현재 유통망 체제는?

몇 해 전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이후 매출 10억원을 달성하는 등 경영이 비로소 정상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현재 전국 14개 유통망과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식자재 공급처 10군데, 그리고 남품과 식당 200곳에 자사제품을 직접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두식품' 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현재 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에 동참, 새터민들의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역할에 일익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백두식품' 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증가하는 매출액 규모에 걸맞는 '전문 경영인' 영입이 시급합니다. 주먹구구식 경영으로는 더 이상 설립취지와 그 역할중대를 피할 비전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향후 계획이라기보다 당면문제로는 현재 3개동 건물로 이뤄진 공장대지(600평) 임대료 부담을 덜어 줄 정부나 지자체 소유 땅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아쉽습니다. 또한 사업영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대형 할인매장 진입이 관건인데 이를 위해선 2인용 등 소단위 제품포장이 가능한 생산라인 자동화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금력으로는 차마 엄두를 못내고 있지요. 우리에게 시설자금 저리 지원 등의 시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처음에는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측은하고 안되어 보여 팔아준다던 분들도 '방부제나 인공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식품' 이라며 제품 자체의 우수성과 상품성을 인정해주는 걸 보고 느낀 것입니다만 '우리도 하면 된다' 는 믿음입니다. 이 같은 용기와 확신을 배가 시켜 주는 우리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 우리에게겐 절실합니다. 🙏



허윤 통일교육소식지 편집위원 · 경향C&I 총괄팀장
사업규모가 커지므로 '전문경영인' 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그의 운영철학과 '이 곳으로 올 때의 마음가짐 10%만 있어도 스스로 얼마든지 정착할 수 있다' 는 그의 말에서 우리의 이웃, 새터민 이들의 성공신화도 그리 멀지 않았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새터민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 하고 싶다는 윤성철씨는?

러시아에서 탄광노동자로 일하다 1996년 홀로 한국에 왔다. 98년 러시아 벌목공 출신인 허광일씨 등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 협회' 를 만들면서 '대관령 식품' 을 설립한 후 2004년 11월 개명한 백두식품의 홍보이사를 현재 맡고 있다. 지난 5월 문을 연 '정육점식당 · 느림냉면' 음식점 역시 새터민 자립공동체의 모델로 키우고 싶단다





仁術로 활짝 연 남북화합의窓



1천여 전문가 그룹의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는 부산 YMCA 등 부산지역 기독교 의사 400여 명으로 출발, 현재는 법조인·세무사·정치인 등 사회 각 분야 1,000여 명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국제의료 봉사단체. 2005년 3월 '서울그린닥터스' 2006년 7월 '그린닥터스 차이나' 창립 등을 통해 그린닥터스(회장 박희두)는 국내뿐 아니라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 구석구석을 발로 찾아가 의료봉사를 통한 인간애를 전하고 있다

남 측 40평 북측 40평, 그리고 공동시설 40평, 그래서 도합 120평... 도대체 뭐에 쓰이는 건물이길래 남과 북 공간이 따로 있고,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또 따로 있을까?

이 공간은 다음 아년 올 1월부터 진료를 시작해서 4월 26일 정식 개원한 개성공단 내 '그린닥터스 개성협력병원'의 내부 구조이다. 120평 1층 건물인 이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측과 북측이 각자 나름의 진료소를 양쪽으로 배치했으며, 그 가운데 X-레이·초음파 등 수술 장비를 갖춘 공동진료소를 두고 있다. 이처럼 남북공동 '협력진료' 시스템운영은 공식적으로 남북의료협력의 첫 케이스로 꼽힌다.

공식적 남북의료협력으로는 1호

그린닥터스가 남북의료지원사업의 첫 발을 댄 때는 지난 2005년 1월 8일이었다. 당시 남측 근로자들을 진료대상으로 하여 의료진 2~3명이 20평 남짓한 공간에 상주하는 '응급의료시설' 수준이었지만, 말라리아 비상 긴급의료진 파견과 연탄가스 중독 위급상황 대처 등 당시 북측 근로자들의 이용률도 전체 진료자의 20% 수준이었다. 그동안 이 의료시설을 찾은 남북한 근로자 수는 연 2만여 명에 달한다.

현재 모든 의료장비와 의약품 지원을 그린닥터스가 맡고 있는 개성협력병원은 응급의료 및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외래(치과 포함) 진료를 총 30명으로 구성된 의료인력(의사 16명, 간호사 8명, 행정 6명 등)진이 맡고 있다.

남북 양측 의료진이 합동근무를 시작한 지난 4월에는, 2005년 '응급의료시설'을 시작할 그 당시처럼 경계심 내지 어색함으로 서로 말 건네기도 서먹했지만, 개원한 지 3개월째로 들어서는 요즘은 X선 검사지를 놓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파트너로서의 더 없는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고 있다.

150상 규모의 '개성종합병원' 설립추진 중

한편 그린닥터스는 필요한 부지 3,000평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개성병원 협력방식의 운영 노하우와 그동안 쌓은 남북한간 신뢰를 기반으로, 오는 2008년 건축시공 목표로 '개성종합병원' 설립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북한 최고의 종합병원 개념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150병상 규모로 세워질 이 프로젝트는 현재 통일부·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

'그린닥터스'의 전신인 '백양의료봉사단'은 지난 1997년 5월 부



산 당감·개금지역의 달동네 의료봉사 등 사회소외층 대상 인술을 목적으로 발족되어 외국인 이주노동자 무료진료, 중국 상하이 등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해 왔다. 오늘날의 '그린닥터스'는 2004년 2월 정치와 종교,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여 국제재단 및 의료취약지역의 인명구조와 의료봉사를 표방하며, 재단법인 성격의 국제구호단체로 거듭났다.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여 일간 중국 상하이→우루무치(신장 위구르 자치구)→카자흐스탄→블라디보스톡으로 이



어진 '실크로드 의료대장정'에는 각 방문지별로 4개의 의료팀이 구성되어 각 팀별 의사 15명, 간호사 15명, 행정요원 10명 내외가 참여, 4,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 행사에는 부산시 의사회 소속 (개업의)의사와 경상대학병원·동아대의료원·백병원·부산대학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총 400명 참여하여 화제가 되기도. 그린닥터스는 이 밖에도 북한 용천 열차폭발사고(2004. 4)때 1, 2차에 걸쳐 4억 5천만여 원치 의약품 지원과 남아시아 지진해일·파키스탄 대지진 등에 긴급의료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국제의료봉사를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5개국 릴레이 의료봉사 '2007 고구려 의료대장정'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린닥터스의 주요사업 중 특이한 사안을 꼽는다면, 첫째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이다. 지난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사업은 매월 2, 4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4년여 동안 수혜자는 수천 명에 달한다. 다음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까지 모시고 갈 보호자가 없는 의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활곤란자나 지체부자유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그린&그룹홈 닥터 시스템' 운영이다. 이 사업에는 부산YMCA·부산시의사회·부산광역시 보건과·월남참전유공자회, 그리고 부산진경철서사 시범사업 협력기관으로 뜻을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6년 9월에 있었던 '실크로드 의료대장정'에 이어 '2007 고구려 의료대장정'에 오른 것이다. 이 의료대장정은 지난 6월초 발대식에 이어 요동(심양·장춘·연길)→몽골(고비사막)→우루무치(투르판·카스·파미르고원)→티키(카파토키아·이그니온·에베소)→아프리카(코트디부아르) 등을 오는 7월 19일까지 돌며 펼치는 해외의료봉사 사업이다. 이 행사의 참여의료진과 구성단체로는 대한의사협회·서울특별시시사회/부산광역시시사회·산동중의약대 북경캠퍼스/울란바토르의대·부산대학교병원/동아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백병원/베데스다병원·세계로선교회 등이다.



지나온 시간보다, 현재 진행중인 활동보다, 앞으로 더 많은 값진 인술을 펼쳐나갈 '그린닥터스'의 인간 참사랑 실천 모습을 기대해 본다. ☺



취재 정대진 객원기자

그린닥터스 '사랑의 의료봉사' 10년 발자취

97년 05월	백양의료봉사단(YMCA그린닥터스 前身) 발족, 무료진료 시작	05년 5월 27일	남북의료회담 및 대북 의약품 전달 (4억 5천만원)
02년 06월 20일	제1회 해외의료봉사 : 중국 연변(왕청 지역 조선족, 한족 대상)	05년 6월 20일	제7회 해외의료봉사 : 러시아 의료봉사 (라즈돌로예 외)
03년 06월 ~	외국인 이주노동자 무료진료(YMCA그린닥터스 업무시작)	05년 10월 12일	제8회 해외의료봉사 : 파키스탄 지진발생 지역 의료봉사
03년 10월 3일	제1회 기장 철마지역 무의촌 의료봉사	05년 10월 2일	'APEC 참가대상국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의료봉사 및 문화축제'
03년 11월 1일	제2회 해외의료봉사 : 중국 상해 (한족·조선족 동포 등 빈민촌)	05년 11월 12일 ~ 19일	2005 APEC 정상회의를 위한 APEC 의료단 운영
04년 02월 10일	YMCA그린닥터스 창립총회	05년 12월 6일	개성시 어린이에게 축구공 전달 (500개)
04년 04월	이주노동자 진료위원회 설치	06년 1월 5일	제9회 해외의료봉사 : 태국 치앙마이 지역
04년 04월	북한 용천폭발사고 제1차 의약품 배송	06년 2월 16일	제10회 해외의료봉사 : 캄보디아 지역
04년 05월 26일	부산 당감, 개금지역 의료봉사(진료과목 18개과)	06년 3월 4일	동티모르 기아돕기와 축구공 보내기 T.O.F 행사
04년 06월	북한 용천2차 지원의약품 제공	06년 3월 9일	개성공단 내 북측 진료소 의약품 지원 협약식
04년 6월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	06년 5월 30일	인도네시아 대지진 발생지역 긴급의료단 파견
04년 7월	제3회 해외의료봉사 : 방글라데시 의료봉사	06년 6월 5일	제2차 대북지원의약품 전달 및 남북의료협력병원 협약(개성)
04년 7월	개금사회복지관 의료봉사	06년 7월 5일	그린닥터스 차이나 창립
04년 07월 22일	'외국인 이주노동자 건강권' 심포지움 개최	06년 8월 10일	그린&그룹홈닥터스 발대식
04년 08월	제4회 해외의료봉사 : 인도 코친(말리쿨룸·쿠마라콤)	06년 9월 25일	'대북의료세미나' 개최
04년 10월 26일	개성공단 시범단지 응급의료팀 선정	06년 9월 16일 ~ 10월 8일	실크로드 의료대장정 실시 (카자흐스탄, 중국, 우루무치, 블라디보스톡)
04년 12월 30일	제5회 해외의료봉사 : 스리랑카 지진 피해 지역 긴급의료진 파견	06년 11월	그린닥터스 개성병원 완공
05년 1월 24일	제6회 해외의료봉사 : 필리핀 의료봉사 (마닐라 인근)	06년 12월 ~	그린닥터스 개성협력병원 진료 시작 (남북 의료진 공동)
05년 1월 8일	개성병원 진료시작	07년 3월 15일	'대북의료지원 기관연합회' 발대식 및 대북의료세미나
05년 1월 20일	북한 개성병원 특진 : 매월 1~2회 정기적 순환 특별진료 실시	07년 4월 26일	그린닥터스 개성협력병원 개원식
05년 3월 22일	서울그린닥터스 창립총회		

북한음악의 변천사와 특징

사상미학에 입각한 정치지향적인 ‘집단예술’



‘자율성’과 ‘창의성’보다 ‘평등성’과 ‘집단성’ 추구

1. 북한음악의 특징

북한의 음악은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예술로서의 음악이라기보다는, 정치에 예속되어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정치지향적인 예술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하여 공산혁명을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 한편 북한의 음악은, 집단에 의해 집단적으로 만들어지고 집단적 정서가 집단적으로 수용이 되는 ‘집단의 예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요시하며, ‘자유’보다는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은 음악에서의 개인적인 취향과 개성·창의성·전문성·예술성 등은 배제하고 그 대신 음악적 소양이 있건 없건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되어지고 친숙해져야 한다는 평등성과 집단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북한식으로 표현한다면 ‘인민성’과 ‘대중성’을 획득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음악예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얻는 데는 실패하였다.

북한 음악의 또 다른 특징은 ‘국가’와 ‘음악가’와 ‘인민’이라는 삼각체제가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되어 간다는데 있다. 국가와 당은 음악환경을 비롯하여 음악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기획을 하고 음악가를 육성 및 지원하고 음악활동의 장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음악가는 국가와 당에서 제시한 범위 안에서 인민을 위한 음악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인민들은 같은 내용과 같은 수준의 음악을 집단적으로 수용하면서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국가 및 최고지도자에게 충성한다는 시스템 속에서 음악활동이 전개



되고 있다. 즉, 북한음악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상미학에 입각한 정치지향적인 집단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음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사가 없는 기악음악보다는 가사가 있는 성악음악, 추상적인 음악보다는 사실적인 음악, 고급예술보다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통속음악, 서정적인 음악보다는 서사적인 음악, 서양음악보다는 북한에서 만든 창작음악, 정서적인 음악보다는 사상적인 음악, 상업적인 대중음악 보다는 비상업적인 대중음악, 궁중음악이나 정악보다는 민속음악이 발달하였고, 음악의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선율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조선의 음악은 반드시 조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인민의 감정에 맞아야 한다”는 원칙을 만들었고, 조선음악의 본질이 ‘우아함’ ‘아름다움’ ‘유연함’에 있다고 보고 이를 현대적으로 살린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민족음악은 ‘민요’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 표현수단인 발성법과 창법을 바꾸었고, 또 전통악기를 대대적으로 개량하였다. 그리고 연주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개량악기와 서양악기를 섞어서 하고 있다.

‘혁명가요’와 ‘민요’를 뿌리로 발전

2. 북한음악의 변천 및 시대별 대표 작품

해방과 함께 북한 지역은 일찌감치 소련의 영향권 안에 들게 되었고, 또 공산주의적 체제로 단일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당성·인민성·계급성이라고 하는 레닌주의적 문예관을 정책화하여 그것을 음악에 반영시켰으며, 동시에 ‘새로운 조선음악의 건설’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모든 음악가들로 하여금 이에 동참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는 해방 후 북한 음악의 성격을 규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그 결과 ‘혁명가요’와 ‘민요’를 뿌리로 발전을 하게 된다.

혁명가요는 일제강점기 때 항일투쟁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 불린 노래라는 이유 때문에, 민요는 프롤레타리아 민족주의 정신을 반영한 노래라는 이유 때문에 더욱 중요시 되었다. 혁명가요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선인민혁명군’ (실제로는 일본군가임)을 비롯하여 ‘적기가 사항가’ 등이 있으며, 민요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리랑’을 비롯하여 ‘노들강변’ ‘양산도’ 등이 있다. 그리고 김일성을 찬양한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북한의 국가인 ‘애국가’가 등장하여 가장 중요한 노래로 부각이 되었다.

이후 한국전쟁시기에는 모든 음악 정책과 활동이 ‘전쟁 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전쟁 후에는 ‘사회주의 건설’에 초점이 모아졌다. 전시에는 인민군대와 인민을 전투적 투쟁으로 고무 추동시키는 노래들이 주를 이루었고, 전후에는 천리마 기수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 형상을 그린 노래들이 등장하여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대표적인 곡으로는 ‘초소의 봄’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민족가극 ‘춘향전’ 등이 있다.

그러다가 60년대 후반 음악 분야에서도 이른바 ‘혁명’이 단행되어, 모든 음악은 김일성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노동당이 제시한 주체적 문예방침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북한의 음악은 ‘당의 유일사상 체제 확립과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의 요구에 맞는 음악예술의 전면적 혁명화’라는 방침 아래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이 70년대에 대거 쏟아져 나왔다. 북한이 자랑하는 ‘피바다’ ‘꽃 피는 처녀’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와 같은 5대 혁명 가극을 비롯하여, ‘절가’ ‘방창’ ‘주체적 발성법’ ‘주체적 관현악 편성법’ 등 북한음악의 독창적인 형식과 표현 방식이 모두 이 시기에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전통악기의 개량사업도 이 시기에 완성이 되었다.


그런 한편 오늘날의 북한 음악은 크게 보면 전 시대에 만들어진 ‘주체음악론’을 계승·발전·구체화시킨 것을 주축으로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변화

로는,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체제가 ‘밝고 명랑한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그 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인민들의 생활감정이나 연애감정을 표현한 ‘생활가요’가 등장하여 크게 유행을 하고 있다는 점, 전통음악의 발굴 및 원형보존에 관한 관심이 고조가 되었고 종래에는 부르주아음악이라고 배제되었던 궁중음악이나 정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되었다는 점, 문화정서사업의 일환으로 화면반주음악실(노래방)이 등장하였다는 점, 남쪽의 대중가요가 불리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와 함께 남과 북이 분단 이전에 애창하였던 창가·동요·가곡·대중가요·신민요 등이 ‘계몽기가요’라는 이름으로 재평가되어 불리기 시작했다는 점도 새로운 변화 중의 하나이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 곡은 ‘우리는 하나’와 ‘강성부흥아리랑’이다. 둘 다 김정일이 이끄는 ‘선군시대’를 찬양한 곡으로 ‘우리는 하나’는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이며, ‘강성부흥아리랑’은 김정일이 이끄는 조선은 낭만과 환희에 넘쳐흐르고 강성 부흥한다는 내용의 노래이다.

남한 대중가요 확산은 북한 내부 변화조짐 시사

3. 향후 전망

남과 북의 음악은 다른 점도 많지만 같은 점도 많다. 다른 체제 다른 이념은 다른 음악을 낳게 하였고 다른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그렇지만 같은 전통,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같은 민족이었던 만큼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적지 않다. 북한 음악의 새로운 변모 중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은 남과 북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가요’ ‘계몽기가요’ ‘남한의 대중가요’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동안 사상성만 강조하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북한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북한음악의 변화를 촉진시킬 촉매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까지는 따로 부르고 있는 노래가 많지만, 같이 불렀던 노래가 많았고, 같이 부르고 있는 노래가 점점 확대되어 간다는 점은 그에 못지않게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도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민경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많아지면 많이질수록, 그 노래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도 그만큼 앞당겨질 것으로 믿는다

금강산에 살다 죽어도

높이 오를수록 땅에 가까워지는
 눈썹나무 햇가지 사이로
 바위능선 굽이쳐간다.
 고향이 후치령 어디라는
 눈이 서글서글한 동갑내기들
 세존봉 쇠난간에 기댄 채
 산포대를 따라 삼수 갑산으로
 넘은 산 넘어가고 넘은 물 건너오다
 영마루 옛된 앞갈잎에 가슴 에인다.



나는 벼랑 끝에 엮드려
 구름 흐르는 대로
 장전항에서 온정리로 들어온다,
 풀매는 할배와 이불 걷는 아낙과
 뵈지 않을 때까지 혼드는
 아이들의 웃는 손에 이끌려
 군사분계선을 막 벗어나온다,
 비로봉에서 지리산으로
 백두대간 줄기차게 뻗어 내려간다.

오, 지리산에 살다 죽어도
 백두산에 살다 죽는 한 핏줄이여



시인 신대철**
 충남 홍성 출생, 196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강철의 아침에서
 해빙의 저녁까지' 로시 부문 당선으로
 문단에 나왔다. 그 동안 시집
 '무인도를 위하여' (1977),
 '개마고원에서 온 친구에게' (2000),
 '누구인지 몰라도 그대를
 사랑한다' (2005), '바이칼 키스' (2007)
 등을 냈다





‘2·13 합의’ 이후 첫 회담… 중단 7개월만에 복원

●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나흘간 평양에서 있었다.

이번 회담은 2006년 7월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장관급회담이 7개월 만에 복원되는 것으로 ‘2·13 합의’ 이후 열리는 첫 회담이자 성년에 해당하는 스무 번째 장관급회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를 단장으로 하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해 협의 해결, △‘2·13 합의’가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 △6·15와 8·15 계기시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 재개 및 이산가족문제 해결 협력, △경제협력 확대 발전 및 금년 상반기 내 열차시험운행 실시,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이번 회담은 “‘2·13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공동노력’ 하기로 남과 북이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분야별 남북대화 및 사업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남북협력을 제도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장관급회담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장차 불구, 관계발전에 대한 확고한 입장 상호확인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5. 29~6. 1) 우리측은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계기로 정상화된 각 분야별 남북관계를 정례화·제도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해 나간다는 자세로 회담에 임하였으며, 북측은 ‘6·15 공동선언’ 정신을 강조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 근본적 요인들에 대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한편 ‘쌀 차관’ 문제와 관련하여 북측은 쌀 차관 합의 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쌀 차관 합의는 신의로써 이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쌀 차관 제공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금번 회담은 ‘2·13 합의’ 이행 지연, 쌀 차관 이행 문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변적 정세 속에서도 남과 북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남북간 제반 현안에 대한 협의를 합의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종결하였다.



경의선 56년, 동해선은 57년 만에 남북 동시 汽笛

● 남북 열차 시험운행

올 상반기 중 열차시험운행 실시를 합의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 따라 지난 5월 17일 경의선 열차는 남측 문산역에서 북측 개성역(27.3km)까지, 동해선 열차는 북측 금강산역에서 남측 강원 제진역(25.5km)까지 시험운행 하였다.

시험운행 열차는 경의선의 경우 남측 열차가, 동해선은 북측 열차가 사용되었다. 이번 시험운행에서는 남(교류)과 북(직류)의 전기시스템의 차이로 디젤기관차가 쓰였다. 또한 남북이 철도 신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계신호 대신 깃발을 이용한 수신호를 사용하였다. 경의선과 동해선 각각에 남측은 100명, 북측은 50명이 탑승하였다.

남북 열차가 남북 연결 구간을 오간 것은 경의선의 경우 1951년 6월 12일 이후 56년 만이며 동해선은 57년 만이다.

이번 시험운행은 분단으로 단절된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철도 개통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운행의 성사로 앞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개성공단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남북철도가 연결될 경우 도로에만 의존하고 있는 개성공단 물류체계가 분산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남북간 철도연결은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간 군사보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촉진하는 의미가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조치로 발효

● 3개 경협합의서 발효문본 북측에 전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약칭 : 경추위)에서 합의된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한 3개 합의서가 지난 5월 22일 공식 발효되었다.

이번에 발효된 합의서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경추위 제12차 회의, 2006. 6. 3~6),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수정·보충합의서’ 및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경추위 제13차 회의, 2007. 4. 18~22) 등 3개 경협합의서이다.

지난 5월 17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열차 시험운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일부는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합의서’ 등 3개 경협합의서 발효문본을 5월 22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하였다.

동 합의서는 이미 법제처와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친 것으로 대북 발효문본 전달과 함께 관보에 게재하는 대내 공포절차도 진행하였다.

이번 경협합의서에 대한 발효조치는 남북관계발전법 시행(2006. 6. 30) 이후, 이 법에 따라 취해지는 첫 번째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편집부

예상밖 높은 신청률 '총 356개 기업 신청'

1. 개성공단 1단계 잔여공장부지 분양공고

개성공단 분양권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4월 30일 1단계 잔여 부지 175.8만㎡(53만평)에 대한 분양공고를 냈다.

입주가능 업종은 섬유봉제의복 26%, 가죽가방신발 10%, 기계금속 15%, 전기전자 7%, 화학고무플라스틱 4%, 음식료 및 기타제조업 19% 등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제조업이 가능하다. 분양대상도 일반공장용지, 협동화단지, 아파트형공장용지, 선도기업용지, 외국기업용지 등으로 다양하게 하였다. 총 156개 필지에 대한 분양신청접수 결과 총 356개 기업이 신청하여 예상보다 높은 신청율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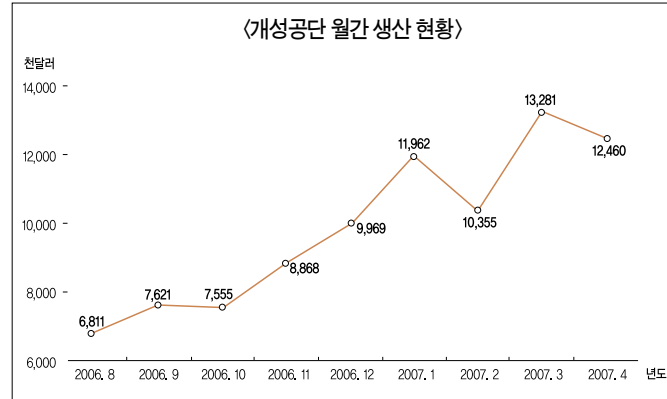
한국토지공사는 6월말까지 입주기업 선정 및 계약을 마친다는 계획이며, 선정된 입주기업은 관련 준비를 거쳐 공장 건축에 착수하게 된다. 이르면 올해말부터 일부 기업들이 공장가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대비 누적생산액 10%, 누적수출 12.2% 증가

2. 개성공단 4월 가동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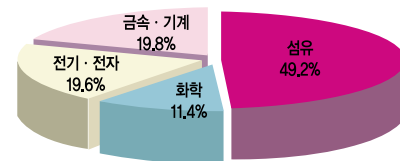
□ 생산액

2007년 4월 말 개성공단에서 가동 중인 22개 기업의 총 생산액은 12,460천 달러로 전월의 13,281천 달러보다 6% 감소하였다. 그러나 누적생산액은 3월의 124,241천 달러에서 136,701천 달러로 10% 증가하였다. 4월의 월간 생산액 감소요인은 북한의 휴무일이 집중된 데 기인한다.



2007년 4월 생산액 12,460천 달러 중 산업별 생산액은 △섬유 6,127천 달러(49.2%) △화학 1,415천 달러(11.4%) △금속·기계 2,472천 달러(19.8%) △전기·전자 2,446천 달러(19.6%)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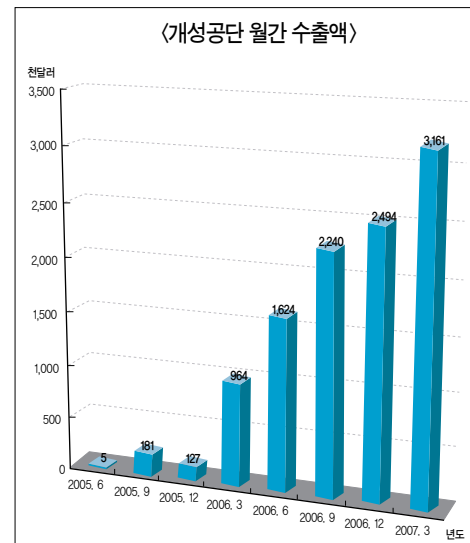
〈산업별 월간 생산액 비율〉



가동기업 평균 생산액을 보면 4월 가동기업 평균 생산액은 566.4천 달러로 3월의 603.7천 달러보다 6.6% 감소하였다. 산업별로는 가동기업 평균생산액은 △섬유 680.8천불 △화학 707.5천불 △금속·기계 412천불 △전기·전자 489.2천 달러로 섬유와 전기·전자의 생산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화학 및 금속·기계 분야는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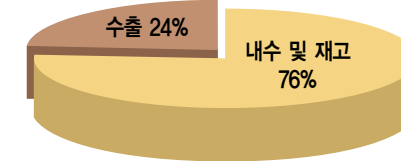
□ 수출액

2007년 4월 수출액은 2,996천 달러로 전월의 3,161천 달러에 비해 5% 감소하였다. 그러나 누적수출액은 32,067천 달러로 전월의 29,072천 달러보다 12.2%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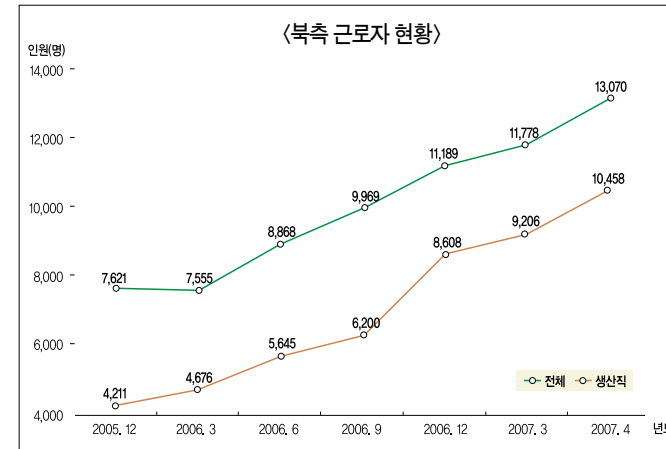
2007년 4월 생산액 중 수출비중은 24%로 전월 수출비중(23.8%) 대비 0.2% 포인트 증가하였다. 4월말 현재 누적수출액은 32,067천 달러로 3천만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생산누계액 중 23.5%를 차지한다.

〈월 생산액 중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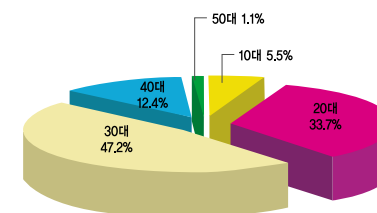
□ 북측 근로자

2007년 4월말 현재 북측 근로자는 1만 3,070명으로 전월의 1만 2,492명보다 4.4% 증가하였다. 이중 생산직 종사자는 10,468명으로 전체의 80% 차지하며, 나머지 20% 2,612명은 현대아산 및 관리위원회에 건설직 등으로 고용되어 있다. 4월말 현재 남측 근로자는 802명이다.



2007년 4월말 현재 북측 근로자 성별 비율은 여성이 83%(11,307명), 남성이 17%(1,763명)로 여성비율이 압도적이며, 연령대별로는 △10대(만17~19세) 5.5% △20대 33.7% △30대 47.2% △40대 12.4% △50대 1.1%로 구성되어 있다.

〈북측근로자 연령대별 분포〉



* 최소 고용연령은 국내의 경우 만15세,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는 만 16세



대미수출 지속적 확대 · 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

3. 한·미 FTA와 개성공단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여 개성공단 발전에 희망을 더해주고 있다.

즉 한미 FTA 협정 발효 후 1년 시점에서 구성되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지역을 일정 기준에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고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특혜관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미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대미 수출길을 확보하여 개성공단 사업이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급적 조기에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이란?

한 당사국에서 원자재(부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국으로 수출하여 추가공정을 거친 후 가공품을 당사국으로 재수입하는 생산방식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역외가공을 인정받은 지역이 역외가공지역이다

반세기의 기다림, '내금강' 관광길 열려

6월부터 매주 3~4회 2박3일 일정

더디어 '금강산의 속살' 내금강이 열렸다. 지난 4월 23일 북측과의 내금강 개방 합의에 따라 남북의 주요인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5월 27~29일과 28~30일 2차례의 시범관광이 실시된 이후 6월 1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내금강 관광길이 열린 것이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 이래 현대아산은 꾸준히 내금강 관광을 추진해 왔으나 북한은 안보문제 등을 이유로 개방에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5월 남북한 공동담사가 실시되면서 내금강 관광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었지만, 북핵문제로 다시 주춤해졌다. "내금강은 금강산 지역에서 약 40km를 들어가야 하는 내륙이라 정치적·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곳인데 북측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는 현대아산측의 발표처럼 내금강 관광 실시는 '2·13합의' 등 북핵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고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례이다.

겸재 정선의 '금강산전도'의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도 유명한 내금강은 뛰어난 산악미를 자랑하는 외금강의 만물상에 비해 아름다운 폭포와 담소가 기암절벽과 조화를 이루는 계곡미가 일품이라 만폭동이라 일컬어졌다.

또한 금강산 4대 사찰인 표훈사와 장안사터, 구리기둥 하나에 모든 것을 의지한 보덕암, 금강산 최대 석불인 묘길상, 김동거사와 나옹화상의 전설이 깃든 삼불암 등 많은 문화 유적도 산재하고 있고, 금강초롱, 금강국수나무 등 학술적으로 의의가 큰 희귀한 식물도 자라고 있어 금강산 관광의 백미로 꼽힌다.

내금강 관광은 현재는 매주 월·수·금요일 2박3일 일정으로 150명씩 출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일 관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③



하늘아래 열린 '天下一色' 풍광

6월부터 개방된 내금강 명소&명물



1. 내금강(内金剛) 개요

주봉인 비로봉(1,638m)을 중심으로 여러 갈래로 퍼져 있는 금강산의 수많은 산봉우리는 1,500m 이상 되는 것만도 10여 봉, 1,000m 이상 되는 봉우리도 약 100여 봉이나 된다. 금강산은 남북으로 이어지는 오봉산(1,264m), 상등봉(1,229m), 옥녀봉(1,423m), 비로봉(1,638m), 월출봉(1,580m), 차일봉(1,529m) 줄기를 경계로 해 내륙을 향한 서쪽을 내금강, 바다를 향한 동쪽을 외금강이라고 부른다.

사찰로는 금강산 4대 사찰 중 신계사를 제외한 3개 사찰(장안사·표훈사·유점사)이 내금강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정양사·마하연·보덕굴·영원암·수미암·내원통암 등의 절과 절터가 있고 묘길상·삼불암·마애불 등 외금강에 비해 많은 문화유적이 있다.

내금강 일대에는 분비나무·기문비나무·박달나무·황경피나무 등 한반도의 고산 지대에 사는 북방 계통 식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산삼·만삼·산작약·만병초 등의 약초와 돌버섯·송이 등의 버섯도 많이 나고, 열목어·금강모치·어름치 등의 희귀어종이 살고 있다.

분단 전에 금강산 유람은 곧 내금강을 의미했다고 하는데, 외금강의 굳센 남성미에 비해 내금강은 온화한 여성미가 돋보인다. 여러 갈래 계곡의 물줄기가 빚어놓은 수많은 폭포와 못이 기암절벽과 조화되어 수려하고 우아한 계곡미가 일품이다.

관광코스 예)			묘길상 코스		
〈차량이동구간〉			〈도보이동구간〉		
온정각	만상정	25분	표훈사	정양사	
10,3km			1,1km		
37,3km	표훈사	75분	0,1km	금강문	
			0,8km	흑룡담	
			0,04km	비파담	
			0,4km	벽파담	
			0,1km	분설담	
			0,25km	보덕암	
			0,12km	진주담	
			0,06km	구담	
			0,05km	선담	
			0,3km	화룡담	
			0,53km	마하연	
			0,74km	묘길상	
	표훈사		삼불암		
	0,5km	삼불암	2분		
			장안사터		
	1,1km	장안사터	3분		
	47,9km	온정각	110분		

2. 내금강 소재 유명지

1) 울소(일명 鳴瀾)

비스듬한 너럭바위가 깔린 개울바닥 위를 기세 좋게 흘러온 물이 굽직한 소리와 함께 떨어지며, 못이 깊다 못해 검푸른 소(넓이 600m) 물소리가 굵은 소리로 특이하게 들려, 그 소리가 사람이 우는 소리와의도 같이 울소라고 함. 고려말 김동거사가 나옹화상을 질투하여 불상 조각하기로 재주를 겨루었으나 패하여 울소에 투신하였으며, 이에



금강문



만폭동



만폭동



표훈사

그의 아들 3형제가 달려와 연일 통곡하다가 그 아버 뒤를 따랐다는 전설이 있던 곳. 김동거사의 시체바위와 삼형제 바위가 있어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 울(鳴), 못 연(淵)자를 써 명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

2) 금강문

내금강 만폭동 입구에 위치하며 그 품이 주위 산세의 화려함에 비할 때 매우 소탈해 보여 오히려 조화감을 갖게 함. 내금강 금강문뿐만 아니라 외금강 옥류동·만물상·천선대·수정봉·삼일포·해금강 등 8군데의 선경^{仙景} 입구에 금강문이 있음

3) 금강대 - 만폭동 입구

만폭동 입구에 위치하며 표훈사에서 동문^{東門}을 나와 금강문을 지나고 있는 너럭바위(길이 200m, 너비 15m) 내금강 만폭동의 경치가 시작되는 곳이며 금강대 왼쪽 계곡은 태상동, 오른쪽 계곡은 만폭동임. 흑룡담을 시작으로 차례로 나타나는 것마다 폭포 아니면 못이요, 못이 아니면 폭포로,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마다 생김새가 달라 만폭동^{萬瀑洞}이라 불림

4) 만폭동

금강문부터 화룡담까지 1.2Km구간. 금강산 계곡의 절경을 대표하는 구역. 이곳에 만폭팔담·진주폭포·분설폭포·관음폭포 등 수많은 폭포가 있음

5) 만폭팔담^{萬瀑八潭}

외금강의 상팔담과 구별하기 위해 내팔담이라고도 하는데, ①흑룡담^{黑龍潭} ②비파담^{琵琶潭} ③벽파담^{壁波潭} ④분설담^{分雪潭} ⑤진주담^{珍珠潭} ⑥구담^{窟潭} ⑦선담^{仙潭} ⑧화룡담^{火龍潭} 등으로 이뤄졌다

3. 내금강 소재 명물

1) 금강국수나무

북측 천연기념물 제 232호. 내금강 금강문과 명경대 부근에 서식하는데 최근 창도군·회양군에서도 발견됨. 6월경에 6~8cm 백색의 작은 꽃이 피는 양성화 ^{양성花}로, 1종이 존재하는 희귀식물. 학술적으로 의의가 큼(남측 천연기념물 제43호)

2) 금강초롱

북측 천연기념물 제 233호. 내금강 만폭동 묘길상 부근과 비로봉·외금강 만물상 구역 부근에 서식. 1909년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특산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음



금강초롱

4. 불교·문화유적

1) 장안사^{長安寺}터(금강산 4대 사찰 중 하나)

신라 23대 법흥왕의 발원으로 고구려 승려 혜량이 신라에 귀화하면서 551년 창건, 진표율사가 773년 중수. 유점사와 더불어 금강산 2대 사찰로 꼽혔으나, 현재는 폐허가 되어 '장안사터' 라 쓰인 곳만 있음

2) 삼불암^{三佛岩}

장안사터에서 약 2km 떨어진 삼불암교를 지나 위치. (높이 8m, 너비 9m) 나옹화상의 원불로 조각되어 있는데 오른쪽부터 미륵불, 석가불, 아미타불 순. 손 자세가 조금씩 다름

3) 표훈사^{표훈寺}

금강산 4대 사찰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사찰로, 위치상으로는 전망으로는 내금강의 중심부라 일컬어질 만큼 비경으로 유명. 신라 문무왕 10년(AD 670년) 창건되었으며, 현재는 반야보전, 2층 다락문인 능파루, 명부전 등 7개의 건축물 남아 있음

4) 정양사^{正養寺}

표훈사 서쪽 1km 위치. 표훈사와 더불어 신라시절(AD 600년) 창건, 조선후기 1971년 고쳐 지음. 이광수의 금강산 유기에서 예찬한 '혈성루' (지금은 소실)가 있어 유명해짐. 3층석탑은 신라시대 작품으로 구조의 정교함과 고색창연한 산중 명물

5) 혈성루^{血城樓}

해발 800m에 자리해 내금강 47개의 봉우리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 정선의 진경산수화 중 백미로 꼽히는 '금강산전도'의 배경이 된 곳으로 각 봉우리 이름을 새긴 원추형 모형을 만든 지붕대가 있었으나 소실되었음

6) 보덕암^{보덕庵}

만폭팔담의 분설담과 진주담 사이에 위치. 최초 건물은 고구려시대(AD 627년)에 세워졌고, 소실 후 17C에 재건됨. 보덕암은 구리 기둥 하나에 모든 것을 의지하여 심한 바람이 불거나 4~5명이 마루바닥을 걸으면 움직임이 심하나 300년이 지나도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함

7) 마하연^{摩訶衍}

유점사의 말사. 신라 의상대사 창건, 당우^{唐宇}는 순조 31년 월송선사가 중건하였으며, 현재는 마하연도 소실되어 부속건물인 칠성각과 8자 정자인 연화대만 현존

8) 묘길상^{묘길相}

마하연 묘길상. 문수보살상이라는 한자어. 실체는 아미타불의 모습으로, 언덕 뒤 대패로 민 듯한 암벽에 높이 15m, 너비 9.4m, 얼굴은 길이 1.5m, 너비 2.6m에 눈길이 1m, 귀의 길이 1.5m로 거대한 마애불임.(금강산 최대 석불) 고려시대 나옹조사 원불로 조각되었음



정양사



삼불암



보덕암



묘길상

편집부



농업을 통해 '실질적 하나' 를 이뤄가는 노력들

남북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온 각 지자체별 남북 농업교류 사업은 그동안의 남북간 신뢰구축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실질협력의 파트너십이 공고해짐에 따라 그 결실이 더욱 알차게 맺어지고 있다. 편집자 주



경남

교류협력 기반위에 '람사총회' 참가 공식요청



경상남도 '경남도민 대표단' 일행은 지난 4월 9일 2박3일 일정으로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2007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합의서(2007. 3. 16) 내용에 의해 성사되었다. 경남도민 대표단은 북측 요청으로 경상남도가 지원하여 건립된 소화교 기공식과 농기계 보관창고 현판식 참석 및 밀양에서 가져간 포플러 식수행사를 갖고, 남북공동벼농사·남새온실 협력·통일딸기 생산협력을 논의하였다.

또한 2008년 10월 28일 경남에서 개최되는 람사총회에 북측의 대표단이 참가하도록 공식 요청하였다. 북측은 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양측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남북공동벼농사 사업은 2005년에 40만 평에 이어 올해는 60만 평을 확대 시행중이며, 지난해 3월에는 이 사업으로 생산된 '경남평양미' 중 일부 1톤(평양25호 찰쌀 품종)이 반입되기도 했다.



'통일딸기' 맛보세요

지난해 5월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 딸기 모주 3,500주를 북한에 보내 키운 모종 중 우량모를 다시 들여와 재배한 결과, 지난 2월 15일에 첫 수확을 거둔 '통일딸기'가 평양에서 육묘되고 경남에서 길러낸 경남통일딸기라는 브랜드로 4월말까지 시중에 유통되었다.

농업부문의 인도적 상호협력사업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이 사업은 북측의 노동력과 남측의 기술력 결합으로 이뤄낸 결과였다. 딸기모종 시장이 국내의 비싼 인건비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중국에서 일부 수입하고 있는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시설원을 하지 않은 토양 덕분에 무균·무바이러스 딸기모종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품성 또한 우수하다는 평가



경기도

‘북한 접경’ 특수성 감안, 실질적 협력 지향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도는 지역적 특수성에 기초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중앙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2004년 4월 ‘남북교류협력사업’ 합의를 체결하고 227억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였다.

2004년 경운기 100대와 콤파인 20대를 황해북도에 지원한 경기도는 단순 물자지원에서 실질적 역할분담 하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전환하여 2005년 농업분야에서 최초로 남북간 기술협력을 통한 ‘벼농사 시범사업’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협동농장 중심)을 시작하였다. 벼농사 협력사업은 2005년 9천 평에서 지난해 30만 평으로 대폭 확대, 지난해 1톤에 이어 올 2월에는 ‘경기평양미’ 2톤을 반입하였다. 한편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경기도 대표단 29명이 방북하여 남북공동모내기 행사를 하고 돌아왔다.

확대된 재배면적의 효율적 관리 등 북측의 농촌 기반강화를 목적으로 한 ‘북한 농촌 현대화 사업’을 3년 동안 추진하기로 합의함(2006. 3)에 따라 지난해 농업기술자 7~8명이 2주씩 교대 상주하면서 27동(3,600평)의 비닐하우스 육묘장을 설치하고 7톤의 법씨를 파종하였다. 또한 1.5km에 달하는 농로와 진입로 2.2km 포장공사 완공과 주택·소학교·유치원 보수자재 및 도정공장 신축과 진료소 건립을 위한 건축자재를 지원, 올 5월말 현재 도정공장과 진료소 등은 마무리단계에 있다.

‘아가씨 토마토’ 를 아시나요?

벼농사를 마친 육묘장을 활용, 토마토·오이·호박 등을 파종, 모종하고 있는데, 토마토 중 방울토마토는 인기가 대단하다. 일명 ‘당곡리 토마토’가 아가씨들이 먹기에 좋다고 해서 ‘아가씨 토마토’라고 불린다고. 토마토는 생육상태가 매우 좋아 예상 수확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고추와 가을수박·대파 등을 파종, 생육하고 있다



충북제천

기초지자체 최초 민간차원의 영농기술 협력

충북 제천은 2004년 북측 파트너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전신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과 합의, 해금강 관광도로변(고성군 삼일포)에 사과 1,600주와 복숭아 900주를 심어 과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삼일포 농장’ 관리사 신축(2005. 6)과 해풍 등으로 인한 과수피해를 막기 위한 방풍망(북한에서는 바람일부를 파쇄하여 약하게 해준다고 해서 ‘파풍망’이라 칭함)시설 및 복숭아 덕시설(2006. 3~4)을 하였다.

9월 사과 수확시기에 맞춰 열리는 ‘금강산제천사과 수확 축제’의 올해 행사에는 제천시민 150여명과 북측 50여명 총 20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제천시는 영농협력사업과 함께 제천약초 등 영농문화기술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삼일포 농장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태양전력시설’ 설치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올 3월에 5,000평 규모의 ‘신계사 관광농장’을 조성하여 사과나무 1,000본 식재(5년생 500본)를 완료하였고, 신계사에 금강산제천사과 대형 홍보관 설치와 사과포장재(금강산 제천사과)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박진감 넘치는 武道진수 선배

3박4일 일정으로 서울 방문한 북 태권도 시범단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서울방문이 2002년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 시범단의 9월 평양방문 답방형태로 그 해 10월에 이뤄진 이후 두 번째로 지난 4월 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이뤄졌다.

지난 1월 ITF(국제태권도연맹)의 한국 지부가 정식으로 사단법인 등록을 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이번 행사(ITF 대한태권도협회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공동초청)에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장웅 ITF 총재 겸 IOC위원과 황봉영 북한태권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선수 30명과 임원·취재진 등 총 48명이 방문하였다.

‘폼새’를 뜻하는 북한 태권도 용어는 ‘틀’

정신을 강조하는 무도적인 성격이 강한 북한 태권도는 가격[※] 부분별 득점 폭이 크고 주먹타격을 인정함으로써 박진감이 넘치는 것이 특징. 남한의 태권도 폼새를 ‘틀’이라고 일컫는 북한은 24개의 틀 명칭을 천지·삼일·단군·을지·광개·원효 등 우리 민족의 시대적 상황과 위인명으로 하고 있다



북 산림병충해 방제 지원키로 합의

북한의 산림병충해 방제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5월 8일 개성 남북경제협회사무소에서 있었다. 이번 접촉은 4월 초 북측의 산림병충해 방제약품 지원 요청에 대해 우리측이 지원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북한의 산지는 식량을 위한 개간, 댐감마면 및 외화조달을 위한 벌채, 산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황폐화되었다. 특히 하절기부터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소나무 송충과 솔잎혹파리·잣나무 잎벌, 그리고 한반도를 대표하는 참나무류에 발생하는 참나무시드름병 등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면적은 10만ha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접촉에서 우리측은 솔나방 방제 등에 필요한 약품과 기술적 자료 등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또한 우리 측 방제전문가가 방북하여 북측 산림병충해 발생 현장을 방문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5·8 남북실무접촉 합의에 근거하여 우리측은 6월 5일 산림병충해 관련 기술적 자료들을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북측사무소에 전달하였으며, 5월 30일 인천-남포간 운항하는 정기선편에 1항차 지원물자 16종, 6월 13일 2항차 지원물자 2종 등 약 13억 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이어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3박4일 동안 우리측 산림병충해 전문가가 7명이 북측의 산림병충해 피해지역(평양인근 용악산, 대성산, 동명양릉 주변)을 방문하여 현장 기술지도와 산림병충해 방제에 관한 남북협력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북 성홍열 치료제 지원, 민간단체와 정부 함께 참여

2006년 10월 양강도 해산에서 처음으로 성홍열이 발생한 후 함북과 평북 등 북한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기구 및 대북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의약품 지원 대책이 강구되었다.

성홍열은 목의 통증과 함께 고열이 나고 전신에 발진이 생기는 전염병으로 국내에서는 집단발병 사례가 없지만 북한에서는 식량난과 의약품 부족이 겹치면서 노약자와 영유아를 중심으로 감염 및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JIS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소속 민간단체들은 대북의약품 지원에 나섰다. 한편 통일부는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았으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지원요청을 받고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민간단체가 지원한 규모의 2배를 지원해주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4억 원을 지원하였다.



* 위 사진은 굿네이버스에서 제공했음.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공사 재개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중단된 금강산면회소 공사가 3월 21일부터 재개되었다. (하단 사진)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사업은 2000년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3년여 만인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가 성사되어 2005년 8월 31일 착공식을 가졌었다. 2007년 완공을 목표로 2006년 6월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공사는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그에 따른 정부의 쌀·비료 지원 유보 조치에 반발한 북한이 이산가족사업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나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2. 27~3. 2 평양)에서 남과 북은 금강산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3월 9일과 10일 이틀간 후속 적십자실무접촉이 금강산에서 있었다. 이 접촉을 통해 3월 21일부터 금강산면회소 건설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5월말 현재 35%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내 외부 공사를 완료하고 내장 및 조정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이산가족면회소를 완공할 계획이다.

이산가족 제5차 화상상봉 및 제15차 대면상봉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2007. 2. 27~3. 2)의 합의에 따라 3월 27일에서 29일까지 제5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이 3일간 실시되었다.


‘가족 대 가족’ 화상상봉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상봉에는 남북이 각각 60가족(2~5명의 가족 동반) 총 865명이 상봉의 기쁨을 누렸다.

화상상봉은 남측 서울·인천 등 9개 도시 13개 상봉실과 북측 평양의 10개 상봉실을 연결, 1일 4회로 상봉시간대별 남북 동시 10가족이 상봉하였다.

지난해까지 4차례의 화상상봉에 이어 올해에도 화상상봉이 지속 실시되면서 고통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들을 위한 보완적 상봉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제15차 대면상봉이 5월 9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에서 있었다. 이번 상봉행사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남측 98가족이 북측 가족을 만나러 간 1회차(9~11일)와 12일부터 14일까지 북측 100가족의 상봉 신청에 응한 2회차 등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었다.

이번 상봉 중 1회차에서는 남북어부 김홍균(62)씨가 남측 어머니 이동덕(88)씨와 39년만에 상봉한 것과 두 국군포로 가족의 만남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남북 당국은 올해 추석(9. 25)을 전후로 남북 100가족씩 제 16차 이산가족 대면상봉을, 광복절(8. 15)과 추석을 전후로 각각 남북 40명씩 화상상봉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추석을 계기로 기 상봉자 20가족 대상 영상편지 교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06년 10월 통일부 주도로 발의
1. '전후 남북피해자 지원법' 제정

전후 남북자와 이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전후 남북피해자 지원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27일 공포되었다.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 냉전구도 하에서 대립이 격화되었던 시기에 남북된 자는 모두 3,795명이며, 이 중 3,315명이 귀환했고 480명이 억류 중인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국가의 기본책무인 자국민보호와 냉전시대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남북자 가족들이 겪어왔던 고통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동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2004년 4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남북자가족 지원 특별법 제정을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에 권고한 이후, 정부에서는 법률안 제정을 위한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2006년 10월 통일부 주도로 법안을 발의하여 제정하였다.

동 법률에서는 3년 이상 남북되었다가 귀환한 남북자에게는 '정착지원금'을, 3년 이상 남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남북자의 가족에 대해 '피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 남북을 이유로 한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귀환 남북자 또는 남북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남북자 및 남북피해자, 보상 및 의료지원 대상자 여부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될 '남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함으로써 본인 또는 가족의 남북으로 인해 피



해를 입은 남북피해자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남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남북교류협력 증진에도 기여 기대
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지난 3월 6일 당시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5월 25일 공포되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기업 및 우리 근로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 법률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 정당의 투자 안정성과 활성화를 제고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정당의 지지로 동 법률안이 통과되어 개성공단 사업은 법적근거를 토대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동 법률에서는 개성공단을 국내공단에 준하여 기반시설·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률상 북측 기업이라는 이유로 직접 대출을 받지 못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의 직접대출이 허용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에 개성공단이 포함되어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측 모기업은 투자액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이 물류현대화와 협동화사업, 환경오염 감소·기술인력 양성·경영 정상화 등을 추진하면 중소기업구조조도 화자금도 지원받게 된다. 그리고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사업 등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법률상 북측 기업이라는 이유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던 각종 노동 및 보험 관련 법제도 가 적용되게 된 것도 지원법의 성과이다. 앞으로 개성공단입주기업에 고용된 우리 근로자들은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4대 보험과 함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퇴직급여보장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현재 개성공단 통행차량이나 교역물자는 해외에 드나들

때와 마찬가지로 관세법의 철저한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법에서 '민족 내부거래 원칙을 반영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할 수 있다' (17조)고 명시, 통행·통관 절차를 간소화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제정으로 FTA 역외가공지역 선정에 필요한 노동·환경 조건 정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8월 경 발효될 동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입주기업 및 우리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04년부터 남과 북 민간단체서 추진해온 공동사업
3.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정



분단 60여 년간 별다른 교류 없이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생활해 온 결과로 나타난 남북간 언어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남과 북의 민간단체가 추진해온 공동사전 편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올 4월 2일 '전후 남북피해자 지원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하고 4월 27일 공포·시행되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남과 북만이 아니라 해외동포의 이질화된 겨레말을 집대성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 언어규범의 일치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통일교육 소식지 4호 참조) 동 법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2012년까지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예산지원, 사업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계사 복원 소임 중인 스님이 보내온 한 통의 편지

지금은 '고향' 같은 금강산에 살며

금강산에 와서 생활한 지가 4년째가 되었다. 금강산의 추운 겨울을 세 번이나 보냈다. 또 봄이 왔고, 어느 듯 신록은 우거져 금강산은 더욱 화사해지고 있다. 그 동안 경험하고 느낀 것이 한둘이랴. 처음 군사분계선을 넘어설 때 참으로 황량하고 쓸쓸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고향 같은 금강산이 되었다.

金剛山

날마다 북측 사람들과 만나고 일하면서 그만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배려를 해 줄 때 얼마나 동족애 · 인간애를 느낄 수 있는지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시간이란 여정이 필요했다.

처음 이 곳에 왔을 때 신계사에는 북측 사람들이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먹을 것을 주면 멀리서나마 받아먹고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꼬리를 들거나 반가워하는 기색은 없었다. 일꾼들이 그 강아지에게 정을 붙일 수 없었다.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원인은 간단하였다. 강아지는 미세한 냄새로 상대방을 인식하는데 그 냄새의 차이에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즉 남측 사람들에게서 풍기는 체취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다. 남측 사람들이 사용해온 의류 비누 화장품 음식 등에서 풍기는 색다른 냄새가 강아지와 거리를 좁힐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큰 문화적(?)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 모두도 자신들이 살아온 입장에서만 대상을 본 것이다.

자신들 입장에서만 대상을 본 게 아닌지...

우리가 같은 남한 땅에 살더라도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지역적인 언어와 생활관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 지금은 발달된 교통과 다양해

진 언론매체를 접하고 살다 보니 지역적 차이가 없어진 듯 하다. 그러나 곰곰이 살펴보면 분명히 차이나 특징이 나타난다. 교통이 활발하지 못하던 옛날에는 더욱 뚜렷한 지역특성이 있었다. 통일된 국가라 하더라도 경상도와 평안도 지방의 특색은 분명히 있을 텐데, 60여 년의 분단이라면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크다 하겠다. 그 강아지에게 남측사람들은 매우 색다른 이방인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이웃집 아저씨 동무가 아니다. 경계를 할 수 밖에.

단순한 감각으로 상대를 인식하는 동물들도 이렇진대 복잡다단한 사유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통일을 위해서라면 먼저 동질성과 차이성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큰 과업이다. 자신의 사고와 생활방식이 옳으며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사고방식을 되돌아보자.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면서도, 차이점도 인정하자. 상대방에게서 장점을 찾아보려고도 하자.

역지사지라 했던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불교에는 중도라는 말이 있다. 거문고 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팽팽하면 줄은 끊어진다. 적당하게 조이어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날 때 그것이 중도이다. 가장자리로 너무 치우치는 시각보다는 균형 잡힌 안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의 언어만의 중도가 아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내가 서 있는 자리도 살펴보면 서로가 존중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말도 점차 갈리어 온 분단의 세월

신계사에서는 가끔 북측 사람들과 함께 족구도 한다. 규칙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절충의 룰을 정한다. 신계사관 경기규칙이다.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한다. 가공된 조미료가 덜 들어간 토속적 음식 맛을 본다. 민속음식의 본래 맛을 느낀다. 음식과 관습에 관하여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미풍양속의 원류를 찾기도 한다. 음식의 이름에 관해서도 차이가 뚜렷함을 알 때도 있다. 서로 배우게 된다. 언어의 사용에서 보면 북측은 외래어에 덜 몰들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담배를 끊다' 라고 하지만 북에서는 '담배를 떼다' 라고 말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떼다' 가 옳은 표현이다. 그리고 '이것과 저것은 틀리다' (남측 표현)에서 '틀리다' 는 틀린 표현이다. '다르다' 라고 해야 옳은 말이다. 우리가 오징어라고 하는 것을 북에서는 낙지라고 한다. 북에서의 오징어는 갑오징어를 일컫는다. 남쪽 지방에서 나는 해산물이 북에서는 나지 않으므로 이름이 그렇게 된 것 같다. 물에 헤엄치는 거위를 북에서는 '계사니' 라고 하니 처음에는 무얼 말하는지 몰랐던 적도 있다. 뒷장을 '토장' 이라고 한다. 이렇듯 분단의 세월 속에서 우리의 말도 점차 갈리어 왔다. 통일의 길에서 정리하고 정의해야 할 일이다.

목조건축의 구조 · 단청 · 발굴조사 등 학술적인 문제에서는 차이가 더 날 때도 있다. 남북의 학자 간에 의견이 상충되기도 한다. 그래서 실무회담이나 지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용어의 정의 같은 문제는 이제 서로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섰다. 서로 통하기에 작업에는 지장이 없다. 가히 신계사 복원불사는 통일과정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종합적이다.

금강산에 살다 보면 금강산만의 특색도 있다. 식물 동물 광물 등 모든 면에서 그렇다. 금강초롱 · 금강국수나무 등은 오직 금강산에만 자라는 식물이다. 금강산 높은 지대에서 나는 '병풍' 이라는 산나물이 있다. 이 나물은 이제까지 먹어 본 것 중에서 최고로 칠 만하다. 온 입안에 썩한 향기가 진동을 하니 금강의 정수를 모두 먹는 느낌이다. 산 더덕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진액이 많고 향기가 진하며 크기가 작다. 금강산의 정기가 진하니 산에서 나는 모든 게 향기도 진한 듯 하다. 금강산의 식물 가운데 백미는 아무래도 소나무라 할 만 하다.

금강산의 소나무는 모양새가 다르다. 금강송만의 아름다움이 있다. 미끈하게 쪽쪽 뾰는 소나무도 있고, 정원수로 심어도 최상급이 될 만한 것들이 널려 있다. 곧게 자란 소나무는 건축에서 동량감이요, 작은 소나무들은 금강산의 축소판 같은 아름다움이 있다. 작지만 굵고 아름다운 소나무를 감상하고 싶다면 금강산에 산다는 행복감에 젖어 든다. 잠시 다녀가는 사람은 진미를 모를 수도 있다.

겸재 '진경산수화' 와 흡사한 신계산 앞산

봄날 금강산에는 강하게 부는 바람이 있다. 워낙 강풍이고 지역적 특색이 있어 '금강내기' 라는 칭호가 붙었다. 버스의 유리창이 깨어



지고 컨테이너 철문이 휘는 정도의 바람이다. 상상이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사실이다. 이 강한 봄바람이 소나무를 아름답게 만든다. 살다 보니 알게 되었다. 바다 쪽 소나무의 잎들은 이발사가 깎아 놓은 듯 가지런하고 품위가 있다. 소나무의 아름다움은 모두 금강내기 덕분이다. 강한 바람에 기와장이 날아가니 금강내기가 공사현장에서는 귀찮은 존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나무 꽃가루가 날려 쉽게 수정되고 번식된다. 씨앗은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 높은 금강산의 기상에 찬 바위틈에 뿌리를 내린다. 기나긴 세월 속에 다듬어 지고, 살아남은 소나무는 고고한 아름다움이 있다. 금강산에 오기 전에 겸재 선생의 금강산그림에서 소나무나 바위들을 보고 상상으로 그린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하지만 여기에 오면 겸재의 그림이 진실로 진경산수화임을 알게 된다. 특히 신계사 앞산의 모습은 그림과 매우 닮아 있다.

북측 사람들은 그만큼 소나무를 좋아하지는 않는 듯 하다. 태어나 자라면서 소나무에 묻혀 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으리라. 오히려 북의 사람들은 잣나무를 더 좋아한다. 실과수이기 때문이다. 잣나무뿐



만 아니라 배·감·밤나무 등도 소중히 여긴다. 아마도 나라에서 권장하는 것 같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소나무를 보는 시각도 다르지만 저마다 장단점은 있는 것이다. 금강산 초입에는 나무가 별로 없는 산들도 있다. 봄이면 남측의 몇몇 단체나 기관에서 와서 식수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매년 한 곳에서 하며 식생을 고려하지 않는 식목행사도 있어 아쉽게 보이기도 한다. 금강산 지역에 자라는 나무를 중심으로 하되 식물생태계를 고려했으면 더 좋을 일이다.

북한을 알려면 '집안일처럼' 정확히 알아야

후손 만대에 물려줄 금강산을 제대로 보전했으면 한다. 식생을 교란시키지 않고, 북측에도 도움이 되는 행사여야 하겠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한다. 행사위주·성과주의의 통일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일부 나무가 없는 산들은 빨갭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연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연의 힘으로 복원될 것이다. 우리가 어릴 적 시골의 모습을 떠올리면 동네 주위에는 민둥산이 많았었다. 그런데 나무가 빨갭으로 사용되지 않자 산은 저절로 푸르름으로 장엄되지 않던가. 제대로 식수를 못하면 자연에 맡기는 일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시간과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온 하나의 민족!

점차 그 간극을 메워 나가야 할 임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몇몇의 사람들과 특정류에 있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다.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자기의 위치에 맞게 관심을 가지고 맞아야 할 매우 큰 임무이다. 중요한 점은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피상적인 것만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편이다. 우리의 집안일처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바르게 알 때 제대로 된 해결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시간과 경제의 문제와 직결된다. 우리의 민족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서투른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 개개인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부할 때 통일은 큰 충격 없이 이루어 질 것이다. 통일은 단순한 낭만이나 희극이 아니다.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과업이다. 큰 틀에서 생각해 보자. 관심을 갖자. 통일을 위하여 모두가 공부를 하자. 🌍



제정스님 신계사 복원 총책임(도감)
합천 해인사로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복원하는 금강산 신계사에 2004년부터 머무르고 있는 스님은 불교의 중도적 입장으로 일을 바라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금강산 신계사 복원 추진일정 및 경과 (2004~2006년)

연도	일시	내용	
2004년	1월 15일	대웅전 복원 설계도 마련	
	3월 22일~24일	신계사 복원봉사 관련 금강산 남북실무회담	
	4월 5일~7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봉사 현장 착공식 봉행	
	6월 19일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 발족식	
	6월 21일	금강산 현지 공사현장 준비	
	7월 19일	제1차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 회의 실시	
	8월 31일~9월 3일	대웅전 초석다짐 기초공사	
	9월 17일	대웅전 기초 조립공사 시작	
	11월 18일~20일	대웅보전 낙성식	
	2005년	2월	신계사 전체 복원 조감도 마련
2월 1일~4일		제1차 남북실무회담 개최	
8월 29일~31일		관음종 성지순례 및 범회 신계사 개최	
8월 31일~9월 3일		제5차 남북실무회담 개최	
10월 8일~10일		제3차 불교 방송 성지순례단 신계사 참배	
10월 31일		산신각 골조공사 및 기와공사 마무리	
11월 4일~6일		산신각 시주현판식 및 석탑보존처리 방북	
11월 25일~28일		목재훈증처리 작업 및 준공도면 실측작업	
12월 22일~24일		조계종 전체 총무원 금강산 신계사 답사 실시	
12월 27일		2005년도 복원공사 마무리	
2006년		4월 25일~30일	MBC 촬영팀 신계사 방문
		5월 19일	* 2006년도 도목수 선정 및 계약 체결(성전건설 최현규) - 7개동 전각 복원 및 4개동 단청, 범종불사 * 2006년도 설계 및 감리 업체 계약(조선건축사사무소 윤대길) * 발굴조사 업체 계약(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탁연)
		5월 24일~26일	불국사 성지순례 및 신계사 방문(200명)
		8월 11일~	축성전, 칠성각, 종각 공사 시작
	8월 11일~9월 8일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오사채 지역 및 주변 전각터)	
	8월 30일~9월 8일	석탑 육개석 교체 공사 방북	
	8월 31일~9월 2일	제2차 신계사 현장감리 및 감독 방북	
	9월 1일~9월 5일	극락전 상량식 및 공사 기록촬영팀 방북	
	9월 1일~9월 3일	제7차 남북실무회담 개최, 발굴조사 현장자문위원회 실시 방북	
	9월 2일	극락전 상량식 봉행	
	11월 16일~21일	2006년 금강산 신계사 낙성식 준비 선발대 방북	
	11월 18일~20일	2006년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 낙성식 봉행	
	12월 11일~14일	신계사 부속 법기암터 정비 및 신계사 부지 남북공동 확인 실시	
	12월 14일~17일	통일부 웹진 촬영 및 행사 지원 관련 방북	
12월 15일~17일	국립창극단 소속 창우집단 금강산 신계사에서 소리공양 봉행		
12월 15일~17일	문화사업단 108성지순례 금강산 신계사 및 법기암터 방문		
12월 29일	2006년도 신계사 사업비 정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찾아서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통일 · 북한전문도서관'

북한서적 · 북한영화 · 북한신문... 과거에는 일반 국민들은 그것의 소유는 고사하고, 열람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7년의 대한민국, 우리는 우리의 반쪽 북한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닿아 있는 곳이 인천국제공항이라면, 서울 하늘 아래에서 한반도의 북쪽지역과 호흡을 같이 하는 곳은, 바로 이 곳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이다. 편집자 주



서울 광화문 우체국 6층(서울시 종로구 서린동)에 위치한 북한자료센터는 지난 1989년 5월 22일에 설립되었다. 도서 · 비도서 자료를 막론하고 북한에 관한 모든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말 그대로 북한자료들의 총집합 장소라 할 수 있겠다.

국내 최대의 북한자료 총망라

'북한관련 정보자료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통일 및 북한관련 정보요구에 부응한다'는 자료센터의 운영 목표 첫 번째 글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 '이책의 또 다른 이책'인 북한, 북한자료센터는 그 이책에 대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존재한다. 더불어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바람직한 통일관 형성을 통해 남북한 동질성 회복에 기여한다는 목표 또한 이질화된 남과 북의 간극을 해소하는데 그 존재의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북한자료센터를 방문하면 그 첫 느낌은 자료센터라기 보다 '도서관'에 더 가깝다는 인상을 받게 한다. 책장의 한 층 한 층을 빼곡히 점거(?)하고 있는 많은 책들과 신청만 하면 언제든 보고 들을 수 있는 시청각 자료, 일간지는 물론 가장 최근에 나온 각종 매거진까지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는 북한에서 나온 거의 모든 간행물을 수집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특수자료취급기관 인가 및 관리 감독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정기적으로 북한영화를 상영하고 북한실상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북한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이들은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에 행해지는 이 행사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싶다.

북한자료센터, 그 존재의 이유는?

더 나은 콘텐츠 제공을 위해 자료센터는 언제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듯 하다. 지난 2005년 1월 17일에는 통일전시실을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 해 9월 초부터 작년 2월 말까지 '북한사이트 둘러보기' 콘텐츠 운영을 준비하면서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 동국대학교 북한학 연구소 등과 정보자료 교류협력기관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북한영화상영 지원 확대방안을 수립, 시행하였고 8,000여 권의 통일 · 북한 관련 학술지 원문정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RFID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서점검과 대출반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도난 방지시스템을 설치하여, 자료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이용자 편의위주의 각종 서비스 시스템 완비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남과 북이 하나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통일시대는 반드시 현실로 다가 올 것이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이 곳에는 각종 형태의 다양한 북한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통일 · 안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떠나온 고향의 소식을 알기 원하는



실향민들이 대부분인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통일시대를 열어야 하는 오늘날의 우리가 북한에 대해 알기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시대적 · 역사적 사명과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는 건 아닌가. 국내 그 어느 곳보다 쉽고 편하게 '북한의 오늘'을 볼 수 있는 이 곳에서, 한 민족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야 하는 '우리'를 느끼는 '발걸음'이 많아지기를 소망해본다. [▶ 관련 인터뷰 60P](#)



취재 · 사진 박태환 명예기자

Q & A

“수요와 요구에 맞는 진보를 거듭하겠습니다”

북한자료센터 센터장 송승섭 박사



Q. 아주 식상한 질문이지만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북한자료센터는 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을 잘 드러나게 해준 7·7 선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북한에서 생산된 자료를 열람조차 금지하던 기존의 상황을 탈피한 정책의 실현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여의 준비 끝에 89년 5월 22일에 개관하였습니다. 북한 원전 2만여 권과 관련 국내외 도서 6만여 권, 2천여 개의 영상자료, 정기간행물 150여 점에 일간지·미크로필름 등을 소장한 자료센터는 이를 토대로 북한실상의 이해를 추구하고 민족통일성 회복에 기여하며 바람직한 통일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한자료센터는 북한자료 공개정책의 점진적 추진, 북한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활동 지원, 국민의 자유로운 북한자료 이용 도모 등을 중점 추진방향의 골자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통일 시대, 통일 조국에서 갖춰야 할 국민의 기본적 소양을 함양시키려 노력하는 ‘의미 있는 공간’임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Q. 북한자료센터에는 단순히 서적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자료도 소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좁전에 잠시 언급했던 대로 비디오·음반·레코드, 그리고 북한영화와 조선중앙TV 방영물 등 영상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피바다·꽃 피는 처녀 같은 유명한 혁명가극들도 물론 보유하고 있지요.(웃음) 북한에서 제작한 거의 모든 영화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책으로 출판된 김일성 저작집과 김정일 선

집 등의 CD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 하자면 6·25 당시의 북한자료들도 있는데 이는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Q. 다른 곳과 차별되는 이 곳만의 특징점 몇가지를 들려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우선 50년대 전후반에 나온 북한 자료들을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점이 되겠습니다. 북한에서 매년 발행되는 조선중앙연감은 49년도 판부터 보관하고 있으니 이 역시 다른 곳과는 차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곳들과 다른 또 한 가지는 전면개가제의 시행, 즉 ‘모든 자료를 모두 공개’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RFID, 다시말해 바코드를 삽입하여 대출과 반납을 관리하고, 별도의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3월부터 우편대출서비스를 시행하여 북한자료가 필요한 원거리 열람자에게 우편으로 자료를 보내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신분과 목적을 확인하는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현재는 FAX나 전화, 공문 등을 보내면 쉽고 빠르게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1년 평균 10만 명 수준의 영화관람자가 작년에는 18만 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 자료의 활용이 더욱 빈번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Q. 북한자료실을 120%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20명 이상의 단체가 방문할 경우에 북한영화를 대형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친구·동료·선배들이 함께 모여 단체로 방문하는 것이 우리 자료실을 이용하는데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료를 이용할 때에 해당조직의 추천서 1부만 있으면 1년 동안 북한자료 활용에 우리가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는 우리부와 정보자료교류 협력기관으로 협정을 맺은 기관에게도 우리부 직원에 준하는 편리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통일·안보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본 자료센터를 이용할 분들에게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A. 북한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집대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조금 더 편하고 쉽게 북한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북한 전문도서관으로서 전자도서관 개관에도 더 힘써 통일부 간행물은 물론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굳이 이곳에 오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복사 및 대출 편의를 도모하고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며 정보량을 더욱 늘리기 위한 작업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요와 요구에 맞게 변화하는, 또 진보하는 저희 북한자료센터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통계인프라확충’ MOU 체결 통일부-통계청, DB구축 등에 상호협력기로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김대유 통계청장은 지난 4월 17일 ‘남북관계 통계인프라확충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체결을 통해 앞으로 양 기관은 국가통계포털을 통한 남북관계 통계DB 구축 및 통계지표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통일부는 남북교류 및 대북투자, 개성공단 지원사업 등 남북관계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량화하는 한편,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약정체결로 객관적이고 적실성 있는 통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및 정책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가동개시 1차로 본부 7곳과 외부 7곳 연결

통일부는 본부와 원격 부서간 의사소통 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와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 직원들의 디지털 마인드 함양 차원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부내 공모를 통해 명칭을 ‘팝콘’ Pop-Con으로 결정한 이번 화상회의 시스템은 통일부 본부 내부 7곳과 통일교육원 등 외부 7곳, 총 14곳의 기존 업무망을 활용하여 구축하였으며, 활용도와 예산 등을 감안하여 향후 추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현재 장·차관 참석 일일정책조정회의를 매주 3회 정례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도 부서간 협의의 화상회의의 진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재정기획본부에서는 지난 5

월 22일 각 부서 총괄팀장이 참석하는 혁신성과 및 다면평가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구축, 가동을 시작한 화상회의 시스템은 수평적 의사소통 프로세스 확립을 통해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공유하는 ‘통일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성과’ 반영, 입교생 총 36명으로 확대 제2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 출발

지난 2월6일 통일교육원 강당(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에서 제2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 입교식이 있었다.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은 지난해에 통일교육원에서 새롭게 개설한 교육과정으로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과정에 대비한 민·관 중견지도자 양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올해는 이러한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교육인원을 지난해 29명에서 36명으로 확대하였다.



입교식에 참석한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은 국가의 미래, 민족의 희망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의 유사한 교육보다 소중하며, 피교육생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가기관 국과장급 공무원 및 공기업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교육생들은 금번 교육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통일미래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과정에 대해 많은 기대를 나타냈다.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은 ‘통일정책·북한이해·국제관계·통일과정’의 4개 분야별 전문강의·현장체험·쟁점현안 토론회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남북관계 대처역량 및 전략적 리더십을 배양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민관 핵심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부

제3회 통일문화페스티벌 결산

체험과 교육이 '문화'로 어우러진 한마당 축제



‘평화, 우리가 만드는 거야!’ 라는 주제로 열린 제3회 통일문화페스티벌은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세 번째를 맞는 오프라인 행사로, 청소년과 일반시민이 하나되어 통일을 생각하는 축제 한마당이였다.

지난 두 번의 행사 때와는 달리 이번 행사는 41개 학교에서 소단위(학급단위 등)로 참가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단체 참여가 아닌 본인 스스로의 필요성과 호기심이 발로해서 참여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능동적 행사 참여’라는 긍정적 변화의 조짐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이를 예상이라도 한 듯 통일교육원에서 중점을 둔 이번 행사의 컨셉은 중·고등학생 등 통일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소단위로 즐기면서 배우고 느끼는 문화체험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었다.

교육프로그램 ‘한마음학교’는 1교시 ‘남북청소년 대화’와 2교시 ‘통일미래와 평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이 우리와 함께 어울려 생활하고 있는 새터민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남북사회의 이질성에 대한 이해와 남북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평화지향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체험프로그램인 ‘평화만들기 체험마당’은 통일교육원 전체를 구역별로 나누어 ‘통일체험관’ ‘북한영화전’ ‘개성공단 제품 전시’ ‘통일갤러리’ ‘북한음식마당’ ‘평화놀이터’ ‘공연마당’ 등 총 7개 마당으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을 차별화하였다.

통일체험관은 ‘통일? 느끼고 만지는 거야!’ 라는 주제로 ‘사진으로 보는 남북관계 발전사’ ‘북한교과서 전시’ ‘통일게임방’으로 운영되었다. 북한영화전은 ‘북한의 고은이는 누구일까?’ 라는 주제로 북한 영화 속에 나타난 북한청소년과 주민의 생활을 전문가의 해설을 곁들여 보여주어 눈길을 끌었다.

개성공단 제품전시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주요상품을 전시, 개성공단의 발전현황을 청소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실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음식마당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즐겨먹는 순대·두부밥·옥수수빵 등 북한식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잔디마당에서는 ‘평화놀이터’가 열려 참가 학생들은 통일웃놀이·한마음 줄넘기·희망의 비행기를 날려라 등을 즐기면서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부대행사로 한반도모양의 통에 통일을 기원하며 동전을 던지는 ‘동전 솟 골인’ 행사와 솜사탕 파티 등이 진행되어 축제의 흥을 돋우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문화페스티벌이 청소년들이 통일을 가까이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 ‘나라체험’ 평화놀이

통일교육원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나라체험’ 일환의 오픈하우스 행사를 가졌다. 인터넷 신청가족 48가족(231명) 등 총 400여 명이 참가한 본 행사일 오전에는 교육관 내에서 북한만화 상영·마술공연 등 실내행사가 열렸으며,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놀이 한마당’으로 오픈하우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장기자랑과 한마음 줄넘기 놀이 등이 이어졌다.

통일교육원 직원들이 직접 행사요원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이외에도 페이스페인팅 및 가훈 써주기·가족사진 찍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2007년 1, 2차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 개최

일선교사들의 의견수렴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들 간의 네트워킹 형성축진을 위한 2007년도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이 지난 5월부터 시작되었다. 총 4회를 계획하고 있는 올해의 워크숍 중, 제1차 워크숍은 5월 29일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남북관계 변화와 통일교육’이라는 대주제 하에 진행된 제1차 워

2007년도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 개최 계획

회차	날짜	지역	협조기관
1	5월 29일	광주	광주광역시 교육청
2	6월 20일	충남	충청남도 교육청
3	8월 중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청
4	9월 중	대전	대전광역시 교육청



죽초등학교 엄경자 교사의 ‘새터민 어린이 지도경험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제2차 워크숍은 충남교육청과 충남북통일교육센터가 공동 주관하여 단국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6월 20일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교육’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으며, ‘통일환경의 변화와 학교통일교육의 효율적 방안’과 관련 이상호 만리포교 교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충남지역 초·중·고교 교사 2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린 토론과 현장의 경험공유에 적극 동참하였다.

07년도 ‘대학생 통일포럼’ 총 9차례 열릴 예정

2007년 ‘대학생 통일포럼’이 지난 5월 7일 강원도 춘천교대 통일교육센터 주관으로 열린 제1차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제주도(제주대 평화연구소 주관)까지 총 9차례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사회 내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통일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학생 통일포럼’은 학생들이 연구·발표하고 참가학생들이 토론하는 학생 중심의 행사로 지난해에는 모두 12개 대학 순회개최로 총 1,950여명이 참석하였다.

올해는 통일교육원과 대학 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공 동주최로 열리며, 해당 대학(연구소)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



2007년도 ‘대학생 통일포럼’ 회차별 일정

회차	날짜	지역	대학(주관)
1	5월 7일	강원	춘천교대 통일교육센터
2	5월 9일	부산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	5월 9일	서울	동국대 북한학과
4	5월 10일	서울	경남대 정치언론학부·극동문제연구소
5	5월 14일	충남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6	5월 30일	광주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7	5월 30일	충남	선문대 사회과학대학
8	5월 31일	김해	인제대 통일학연구소
9	10월	제주	제주대 평화연구소

모를 통해 신청을 받은 결과, 춘천교대 등 9개 대학의 북한학과 및 통일 관련 연구소가 확정되었다.

제16기 통일교육위원 1,124명 선출

2007년 4월 30일로 제15기 통일교육위원의 2년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통일교육원에서는 제16기 통일교육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통일교육위원은 다양한 통일교육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통일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지향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번 16기 위원들은 모두 1,124명으로 구성되며 위촉기간은 올 5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이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부터 각 권역별로 1박2일의 연찬교육을 받는 것으로 통일교육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단, 서울·인천·경기권역은 근거리인 관계로 1일 코스로 교육) 편집부

지역별 선정 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인원	295	82	54	66	60	40	30	111	46	40	43	55	50	62	63	27	1,124

통일교육위원 연찬교육 일정

차수별	기간	일자	권역별	비고
1	1박2일	5.21(월)22(화)	광주·전남·전남	
2		5.23(수)		*편리한 차수를 선택,
3	차수별 1일	5.25(금)	서울·인천·경기	시도협의회에 신청
4		5.28(월)		*차수별 160명 내외
5	1박2일	5.30(수)-31(목)	대전·충북·충남·제주	
6	1박2일	6.4(월)-5(화)	대구·경북·강원	
7	1박2일	6.25(월)-26(화)	부산·울산·경남	

‘북한 핵’ 상황 속에서 정부노력 등 수록

2007 통일백서



통일부는 2006년 한 해 동안의 평화변영정책 추진환경 및 추진성과, 남북관계 발전현황을 분야별로 정리한 ‘2007 통일백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백서는 2006년도 북한 핵실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핵실험 상황 속에서도 13만 명의 인원 왕래, 13억 5천만 달러의 남북교역액 달성, 북한 근로자수 1만여 명 돌파 등 남북교류협력 성과를 충실히 담고 있다.

‘2007 통일백서’는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자료실 → 통일부 발간물)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통일부, 비매품**

남북관계발전법 全文 수록으로 활용도 제고

‘2007년 통일문제이해’ 및 ‘2007년 북한이해’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일교육원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통일문제이해’와 ‘북한이해’ 2007년 판이 지난 3월 발간 · 배포되었다.

이번 교재에서는 최근의 ‘2·13합의’ 및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결과까지 반영하였으며, 특히 교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통일문제이해’에서는 남북한간의 주요 합의와 ‘남북관계발전법’ 전문을 부록으로 실었으며, ‘북한이해’에서는 북한의 경제 · 사회적 실상을 중심으로 사진과 도표를 보완하고 ‘찾아보기’를 추가하였다.

교재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자료방에 탑재되어 있어 e-book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다. **통일교육원, 비매품**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등 총 6종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⑬~⑯

통일의 시대적 의미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한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펴내고 있는 시리즈물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의 ⑬~⑯이 지난해 말부터 발간을 시작, 올 연초에 마무리되었다. ⑬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⑭북 · 중 국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⑮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 이야기’ ⑯북한의 환경정책과 실태 ⑰북한의 종교 실상과 남북 종교 교류 전망 ⑱북한의 의료 실태 등 총 6종이다. 이 주제강좌 시리즈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자료방에 탑재되어 있다. **통일교육원, 비매품**

일반용과 학교용으로 이원 편집

2007 통일교육지침서



2006년도와 동일한 컨셉인 ‘일반용과 학교용’ 이원으로 편집한 ‘2007 통일교육지침서’가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되었다. 일반용의 경우 사회통일교육방법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용의 경우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과 과제’를 살펴보고, 초 · 중등학교별 및 교과별(국어 · 도덕 · 사회 · 예체능과)로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이 지침서의 온라인 열람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자료방에서 가능하다. **통일교육원, 비매품**

지면을 통해 볼 수 있는 북 국보유적 193점

圖錄 ‘사진으로 보는 북한 국보유적’



북한의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유적 193점을 볼 수 있는 도록 ‘사진으로 보는 북한 국보유적’이 지난 4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펴냈다.

이 도록에 의하면 북한의 문화재지정체계는 크게 유적과 유물을 구분하고 유적은 국보유적 · 보존유적으로, 유물은 국보유물 · 준국보유물로 구분하는 등 총 4개 항목으로 나뉘어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지정체계와 별도의 법체계를 채택, 관리하고 있고, 무형문화재는 지정체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특징.

이 도록은 남북한종합학술조사연구의 일환으로 북한에서 지정한 국보유적의 사진과 그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비매품**

국립문화재연구소, 비매품

통일교육소식

UNIFICATION EDUCATION MAGAZINE

VOL. 5 2007. 6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통일교육소식’ 담당자(앞)

1 4 2 - 7 1 5



본 통일교육소식(UEM)은 여러분의 마당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의견은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네 맘과 정성을 담은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참여를 바랍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열매를 맺기 위한 빛과 거름이 되겠습니다

본 5호 코너 중 가장 좋았던 칼럼이나 기사가 있다면? 칼럼(&기사) 제목과 함께 편하게 써주세요

본 소식이 다 읽으셨다면, 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소중한 자료를 알려주세요.

- 인물(화제의 인물, 역사적 인물, 주변의 숨은 인물 등)
- 사건(국내외 화제, 통일정책 관련 기사의 심층취재 등)
- 통일교육 현장(관련기관, 학교현장, 우리반 통일이야기, 내가 본 우리아이들의 통일관 등)
- 새터민들의 '나도 한 마디'
- 문화(문학, 공연,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통일, 북한소식, 북한생활 · 문화 등 궁금한 사항은(통일 Q&A 코너)

신설했으면 하는 코너나 장르가 있다면?

통일교육소식

UNIFICATION EDUCATION MAGAZINE

VOL. 5 2007. 6

'독자엽서' 를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300자 서평

‘오늘의 북한’ 연구, 총 7편 실어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2 · 현대북한연구회 엮음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 말 10여 명의 연구자들이 모여 북한의 이념적 실체 규명에 뜻을 함께 하고 결성한 '북한정치사상연구회' 가 그 이듬해 말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단체인 '현대북한연구회' 로 거듭났다. 정치적 편향에서 오는 북한연구 문제점을 개선코자 정치뿐 아니라 사회 · 문화 · 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영입, 그 첫 번째 기획서로 펴낸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1' (2005년)에 이어 이번에 '쟁점 2' 이라는 이름으로, 총 7편의 글을 실은 후속편을 발간하였다. '북한 통일정책 연구의 쟁점' (박호성 박사)은 북한의 통일정책에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그 중에서도 연방제 통일방안과 관련된 쟁점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북한 대남정책 연구의 쟁점' (전미영 박사)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에 관한 기본적인 두 가지 관점인 대남정책 불변론과 대남정책 변화론을 시작으로 각 논쟁들을 다루고 있다.

'북한 경제개혁 연구의 쟁점' (이무철 박사)은 그동안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북한의 경제개혁 연구에 관해 사회주의 이론 및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 사례들과 비교해 가면서 한국사회 내 논란들을 분석하고 정리했다. 또한 북한의 7 · 1경제개혁조치에 대한 평가논란과 함께 북한이 어떤 경제개혁 전략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들을 다루었다.

'북한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신호숙 박사)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접근했던 북한교육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 이후 평화통일의 준비과정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졌던 논란들을 다루고 있다. '북한인권문제 연구의 쟁점과 과제' (우승지 박사)는 국내외에서 상반된 시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북한인권문제 연구를 인권개념, 인권문제 해법, 인도적 지원문제, 미국의 대북인권법 등으로 분류해 고찰하고 있다.

김수암 박사의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에서는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쟁점들을 탈북자 체류지역과 실태, 탈북자의 성격 및 국제법적 지위, 국내입국과정에 관한 견해들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

한울아카데미, 2007년 4월 25일, 17,000원



75편의 만화로 그린 개혁 · 개방 이후 북한모습 평양프로젝트



작가의 경험에 근거한 논픽션 만화 "남쪽에서 온 손님 '빛장별기' 에 이어 펴낸 이 작품은 자신의 경험에 작가적 상상력을 더하고 있다. 남한의 젊은 작가인 오공식이 남북교류협력단에서 추진하는 '평양프로젝트' (평양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그곳에서 생활한다는 설정 하에 개혁 · 개방 이후 북한의 생생한 모습을 75편의 만화로 그리고 있다.

(창비, 오영진 지음, 2007년 4월 20일, 9,500원)

을사늑약이후 일제침략기 사건 재조명 군바바 1, 2권



'황진이' (홍석중 저)에 이어 북한 작가의 장편역사소설 '군바바' 가 남쪽에서 출간되어 문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근대 역사를 다룬 이 소설은 을사늑약이후 국제보상운동, 헤이그밀사사건과 고종의 폐위, 근대해산과 군인들의 폭동 등 일제의 침략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그린 소설이다. 북한의 다른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애정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하여 북한소설로서는 이색적인 느낌을 준다.

(대훈닷컴, 김혜성 지음, 김용광 그림, 2007년 5월 10일, 각권 9,500원)

재일교포 자신들의 정체성 지킴의 근원 재일동포 민족교육 60년, 통일조국의 미래를...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의 역사에서 민족학교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북한국적을 취득하거나 혹은 그저 '조선' 이라는 이제는 사라진 국적을 고수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난 60년간 지켜온 민족학교는 재일교포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근원이다. 테러 위협 속에서도 치마저고리를 고집하는 학생들. 박봉에도 학교에 젊음을 바치는 교사들. 교사 건립을 위해 서러면 장기불황 속에서도 적지 않은 돈을 서슴없이 기부하는 학부모와 졸업생들. 이 책 1부에서는 민족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재일동포들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민족학교가 재일동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2부에서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어제와 오늘을 고찰하고 있다.

(민속원, 민족21 엮음, 2007년 2월 8일, 15,000원)

원조란 선의에만 기반할 수 없음을 강조 구호와 개발 그리고 원조



이 책은 간략한 원조역사 소개와 함께 국제적으로 원조와 관련,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원조제공국가 및 그 국가들 간의 협의체인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세계은행 그리고 유엔체계 간의 합의와 협력체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론과 원조제공 실무체계로 볼 때, 한국의 대북 원조는 다르게 생각해보아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이다. 이 책은 원조가 많을수록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한국이 북한에 대해 대량의 개발 원조를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에서 국제금융기구와 협력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높는데, 이러한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단순한 선의와 욕구를 넘어서는 전문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도서출판 해남, 박형중 지음, 2007년 4월 20일, 17,000원)

